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調查經緯/7

社會背景/8

歲時風俗/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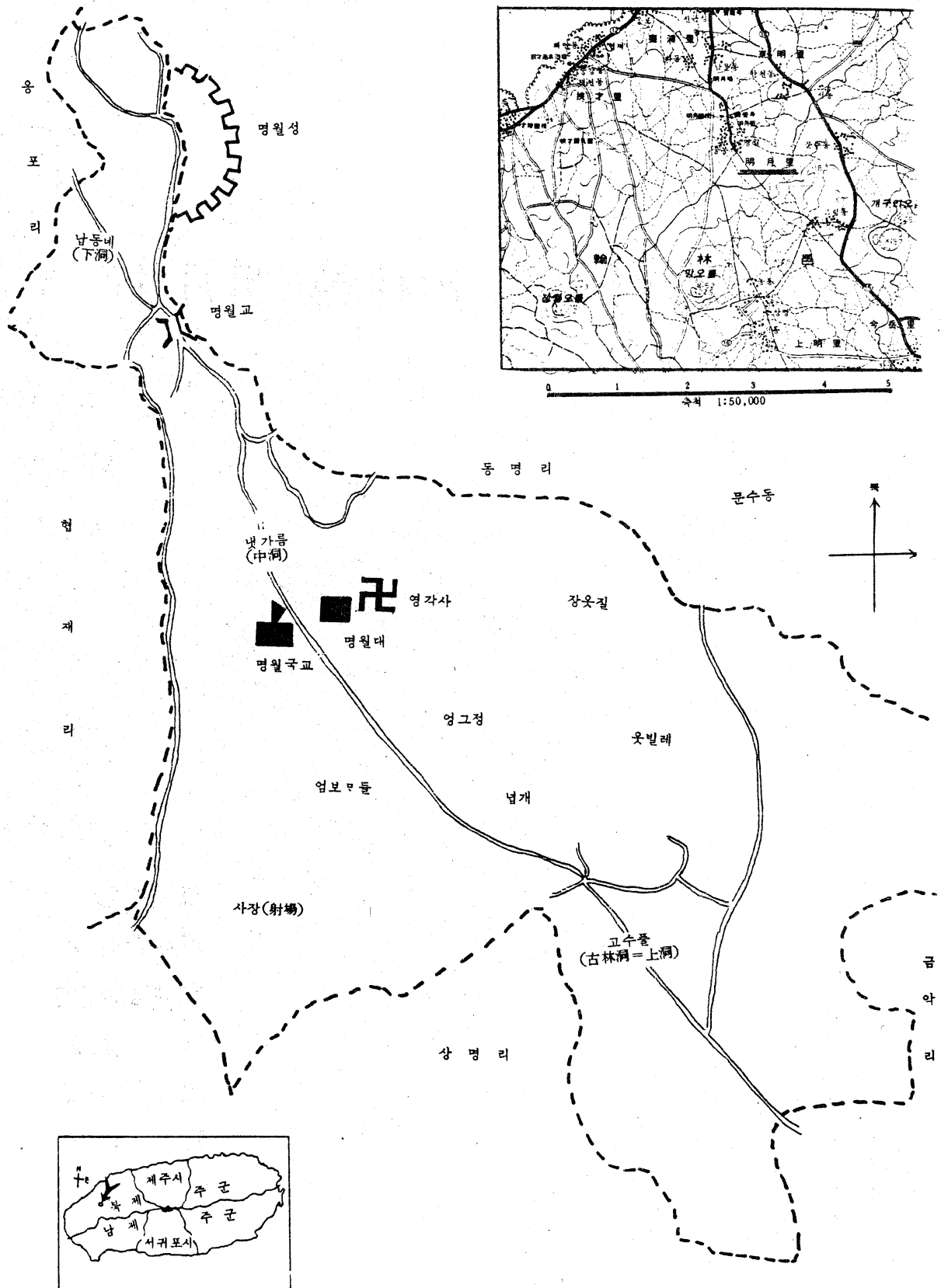
方 言/22

民 謠/39

說 話/51

信 仰/79

調査地位位置圖



調查經緯

본 학과의 現地 學術調査는 1972년부터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되고 있다. 작년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리에 이어 본 제10회 學術調査는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를 선정하였다.

明月里는 濟州 西部地域 中山間에 위치한 마을이다. 生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設村의 最適地였다고 생각된다. 高麗史에 西道 明月縣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設村된 지가 오래되었고, 朝鮮朝에 明月鎭의 中心地로서 여태 明月城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번 學術調査의 준비단계로 몇번의 사전답사를 거쳤고 明月 國民學校에서 숙박해서 1984年 8月 1일부터 8月 4일까지 調査를 하였다. 調査分野는 社會背景, 歲時風俗, 說話, 民謠, 方言, 信仰 등이다. 調査에는 沈汝澤(社會背景), 梁重海(說話), 玄容駿(信仰), 金榮敦(民謠), 梁淳珣(歲時風俗), 尹光鳳(說話), 崔圭一(方言) 教授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셨고 高光敏, 金智弘, 尹致富, 玄丞桓 선배님들이 도와주셨다. 調査班圓은 다음과 같다. (())은 재학학년).

社會背景：吳昶奉(4), 玄元弼(3), 柳永美(3), 吳永心(2), 許淑子(2).

歲時風俗：金錫浩(3), 玄美烈(3), 姜玉順(3), 許珉碩(2).

說話：高彰成(4), 康斗詮(3), 高孝定(3), 金孟宗(2), 姜恩姬(2), 全良淑(2).

民謠：金度勳(3), 梁連先(3), 洪禎延(2), 李姬淑(2), 全美順(2), 梁淵淑(2).

方言：文德燦(4), 高良淑(3), 高美蘭(3), 姜晶植(3), 李性勳(2).

信仰：白雲柱(3), 姜順實(3), 玄智善(3), 梁貞孝(3), 夫良淑(2), 吳美京(2).

끝으로 본 調査에 도움을 주신 明月里 里長님, 明月 國民學校長님, 婦女會長님등 여러 분들과 격려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드리며, 본 報告가 濟州道를 理解·研究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學生들이 大學生活에서 自己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社 會 背 景

目 次

- | | |
|------------|-----------|
| I. 自然環境 | III. 人文概況 |
| II. 歷史的 背景 | IV. 產業構造 |

I. 自然環境

明月里는 행정구역상 北濟州郡의 翰林邑에 속하는 마을이다.

한림에서 약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本道の 입지취락의 주요 요인인 음료수가 풍부한 관계로 일찍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 주민의 대다수가 淸水를 찾아 해안 저지대로 내려와 歸德과 明月을 중심으로 원시적인 공동체생활을 시작하였으니, 이 마을은 해상교통이 봉쇄되었던 과거에는 포구취락으로서 농목이 시작되었던 곳이었다. 또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왜구침입시 방어진취락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림에서 남쪽으로 1.5km를 들어가면 明月里의 입구인 明月下洞이 위치해 있고 明月里의 歷史的인 來歷과 요새지로서의 중요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明月城址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下洞에서 1.2km를 올라가면 明月臺를 중심으로 한 팽나무 林叢이 약 500m쯤 늘어선 中洞이 나타나, 들어서면 순간부터 班村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마을이 現 明月里의 중심지로서 상동과의 거리는 약 1.5km가 된다. 그러나 上洞과는 거리가 먼 관계로 한 里에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원래 明月里는 現在의 上明里, 瓮浦里, 東明里, 今岳里를 포함한 큰 마을이었으나 分里된 이후로 現在의 明月里만 上洞, 中洞, 下洞으로 나뉘었다.

明月里의 中洞, 下洞을 중심으로 한 生水는 12군데이며 이는 翰林邑 전체의 약 40군데의 30%에 해당한다. 가명물, 오자물, 쌍계수, 너븐물, 문두물, 부용물, 마고물, 강생이물, 조물, 가문의물, 종천의물, 요무기물 등이 그것이다. 이런 관계로 이 마을은 상수도가 시설되기 이전에도 식수 문제는 별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特異한 현상은 他里와의 境界가 포장도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포장도로의 동쪽은 東明里이고 서쪽은 明月里이다. 도로(아스팔트)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는 관계로 신앙권의 혼합을 이루고 있고 이 신앙권은 상동, 중동, 하동의 불일치로 주민들 사이의 相互協助는 그리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明月里는 옛 경계로 볼 때 산과 바다로 둘러있는 마을이었다. 북으로는 한림 앞바다가, 남으로는 의연한 한라산의 정기를 받은 오름들과 숲으로 주위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의 明月里內에는 오름이 거의 없으나 주위의 마을과를 연관시키면 붉은오름, 개꼬리오름(狗尾岳: 개꼬리의 형상), 망오름, 눈오름(臥岳) 등으로 둘러 있다.

明月里는 옛상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1976년 민속촌지정 보호구역 대상지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다.

II. 歷史的 背景

上古에는 雙溪水인 乾南川이 항상 흘러서 “水流川”이라 불렸다. 서기 1300년(고려 忠烈王 26年)에 濟州에 東西縣을 설치하면서 이 마을이 山勢가 좋으므로 學者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하여 마을이름을 淸風明月의 뜻인 “明月”이라 했다. 일설에는 마을의 形態가 반달과 비슷하다고 해서 明月이라 했다고도 한다.

이 마을의 設村由來에 대해서는 金榮敦(1977)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 村落概要 및 保存方案’에 다음과 같이 채록되어 있다(요약).

옛날 軍威吳氏 姓을 가진 이가 어름으로 장가 들었는데 晉州秦氏란 이가 나무

를 많이 베어 두고 있어서 吳氏가 나누어 달라고 하자 이땅은 吳氏가 살 땅이라고 하고는 서로 도우며 이웃에 살자고 하며 나무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이유로 군위오씨가 이곳에 정착하고 점차 그 자손이 번창하여 오늘날 13대 약 400년에 이르고 있다. 그 나무를 베던 진주진씨가 이미 터전을 마련한 곳이 下洞이요, 군위오씨가 새로 설촌한 곳이 中洞이다. 지금의 明月里는 下洞, 中洞, 上洞으로 잇달아 취락이 형성된 것이다.

또다른 전승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전 耽羅高氏 明月城內에 거주하였고 1560년경에 진주진씨가 처음으로 현 明月里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후 각 성씨가 明月里에 입주하게 되니 큰 縣村을 이루게 되었다.

1608년에는 縣村制가 폐지되고 坊里制를 設置하매 明月里는 濟州의 右面所在地로서 明月都約正을 두게 되고 그후 明月風憲(現邑長)을 두게 되었다.

明月里는 과거에 지금의 瓮浦里, 東明里, 上明里, 今岳里 등을 포함한 넓은 관도였다. 그후 서기 1623년경에 今岳里가 分里되어 나갔으며, 서기 1732년경에 瓮浦里가 分里되었다. 서기 1777년경에는 東明里가, 서기 1890년경에는 上明里가 明月里에서 각각 分里되었다고 한다.

서기 1800년경에는 水軍萬戶가 설치되어 제주방어의 요새지로서 水軍總監이 駐在하였던 일도 있었다. 1879년경에는 右面이 新右面(현 애월)과 舊右面(현 한림읍과 한경면)으로 분할됨에 따라 舊右面의 所在地로서 이 일대의 중심지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또한 明月里는 제주교육문화의 본산지로서 仁宗 元年에는 牧使 林亨秀가 벽지의 교육을 위하여 明月城 서쪽에 月溪精舍를 건립(月溪精舍明月城西)하고 西學이라 불렀다. 金寧浦口의 金寧精舍와 더불어 향토 교육기관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月溪爲西學 金寧爲東學 分校生 附近居者 讀書于此 擇士人之學文者 爲師長 : 李元鎮 耽羅誌 學校條). 이처럼 明月里는 과거 濟州 西部教育의 중심지로서 敎育文化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4·3사건을 당하여 주민들은 下洞과 翰林 瓮浦等地로 疏開되었다. 1차 소개시에 전가옥이 소각되었으나 그후 주민들이 다시 재건하였다. 이때의 인명피해는 꽤 많은 편이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약 4, 50명 정도 피살되었다고 한다. 1949~50년에 걸쳐 약 6개월 동안은 瓮浦等地로 소개되어 上洞과 中洞은 손실이 있었으나 下洞의 가옥피해는 거의 없었다.

5·10선거를 당하여 많은 주민들이 폭도들에 의해 산중으로 끌려갔고 이로

인해 “빨갱이 마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러한 歷史的 불운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곳곳이 버티어 나갔다. 폭도들의 4·3사건, 5·10선거 방해공작 등으로 인한 무질서의 와중에 明月里의 팽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려는 타지역 및 관의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 팽나무를 지키기도 하였다.

마을의 歷史가 오래고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明月里에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明月城, 明月臺, 팽나무 林叢, 石橋 등이 그것이다.

• 明月城

明月城은 1510년(正德庚午) 張琳목사가 앞에 있는 飛揚島에 자주 왜구가 머물므로 이를 격퇴하고자 하여 성을 쌓았다. 명월성은 둘레가 3,020척이고 그 높이가 8척이었다. 둘로 쌓아서 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내에는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鎭으로서는 안성마춤이라고 쓰여 있다. 성 안에는 客舍와 軍器庫 射場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明月城在明月浦 石築 周三千二十尺 高八尺 東南西有門 城中有泉 如川湧出 大旱不渴 古無城 正德庚午 牧使張琳 以此地爲飛揚島 倭船泊近處 築之 城將 邑城四人 四所城各一人……城中有客舍 軍器庫 射場：李元鎭 耽羅誌).

• 明月臺

明月臺는 朝鮮末 이 地方의 儒林들이나 墨客들이 어울려 風流를 즐기던 곳이다. 明月臺가 있는 川邊에는 약 500m 정도 數百年生 팽나무가 빽빽히 자라고 있고 주위와 調和를 이뤄 운치를 이루고 있다. 臺는 팔각형의 石築을 3단으로 쌓고 그 위에 圓型의 盤石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 콘크리트 처리를 하였다. 明月臺는 1971년 8월 26일에 地方紀念物로 지정되었다.

Ⅲ. 人 文 概 況

명월리는 약 400년 전에 秦氏 吳氏 등이 입주하여 형성된 마을인데 그후 他姓이 입주하면서 큰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이곳에 풍부히 있는 식수원을 찾아 이동한 데 있을 것이다.

현재 이 마을은 268가구에 上洞, 中洞, 下洞으로 構成되어 16個班으로 나뉜다.

〈表1〉 家口 및 人口

(단위: 명)

家 口			人 口		
계	농 가	비 농 가	계	남	여
268	266	2	1201	555	646

〈1983년 현재, 명월리사무소 제공〉

〈表1〉에서 보듯이 戶當平均人口數는 4~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明月里도 他部落과 마찬가지로 계몽운동부족과 이촌향도의 현상으로 인구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表2〉에서 청년층이 적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表2〉 年齡別人口現況

(단위: 명)

나 이	6~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이상
인 구 수	194	371	166	95	154	73	148

〈1983년 현재, 한림읍사무소 제공〉

공공기관으로는 里事務所와 明月國民學校가 있다. 明月國民學校는 各學年 한 학급으로 構成된 조그만 학교이다. 1955년 5월 21일 한림국민학교 명월분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明月里內의 초등교육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더구나 1967년 11월 16일에 明月國民學校로 승격된 이후 유치원까지 병설하여 아동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그밖에 공식기구로는 4H와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있다.

明月里內의 佛寺로는 영각사(법화종) 하나뿐이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佛教信者여서 옆마을의 佛寺까지 찾고 있다. 옆마을 황룡사(태고종)와 금강사(태고종) 등이 그것이다.

明月里의 文化水準은 70년대에 상수도 및 전기가 가설되면서부터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3〉 文化施設

(단위 : 대)

시 설	전 화	T-V	라디오	전 축	냉장고	세탁기
대 수	46	167	176	20	36	2

〈1983년 현재, 한림읍사무소 제공〉

그러나 里內에는 잡화점이 中洞에 2, 上洞에 1, 下洞에 1군데밖에 없어 대부분의 生活必須品은 한림매일시장(1955. 7. 25 創市)과 오일시장(1956. 2. 1 創市)에서 구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創市日字는 翰林邑誌 참조).

IV. 産業構造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알려면 우선 마을과 耕地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明月里는 경지의 대부분을 農地로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農業을 위주로 하는 마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明月里가 山間地帶이고 자갈이 많아 기계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土質이 나빠 農事에만 의존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그 결과 충지를 利用한 축산에 힘쓰고 있다.

〈表4〉 耕地利用現況

(단위 : ha)

총 면 적	경 지			임 야	감 굴	기 타
	전	답	계			
753.3	289.2	1.0	290.2	323	45.5	94.6

〈1983년 현재, 명월리사무소 제공〉

濟州島部落誌(I)

〈表4〉를 통해 볼 때 戶當平均耕地 面積은 1.1ha정도이다. 경지면적은 총면적의 38.5%인 290.2ha이다. 이에 비해 임야는 총면적의 42.8% 323ha이다. 경지와 임야의 비율만으로도 이마을 주민들이 土質이 좋지 못한 관계로 소득향상책을 모색하여 가축을 利用한 소득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경지면적의 6%에 달하는 감귤원 45.5ha도 조성되어 있어서 종래의 주곡 위주 농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이외에 86년까지 마을공동목장 80ha를 초지 조성의 기반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귤의 품종개량과 저장시설 확대 등을 통하여 소득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表5〉 家畜現況

(단위 : 마리)

소			말	돼지	닭	기타
계	한 우	교잡우				
217	61	156	6	214	60	34

(1983년 현재, 명월리사무소 제공)

〈表5〉의 가축현황을 보면, 소의 숫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마을이 마을공동목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례라고 하겠다. 소는 한우보다는 교잡우쪽이 숫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소로써 밭을 갈려고 하기보다 육종우로서의 소를 기르는 편인 것이다. 소 다음으로는 돼지와 닭이 많다. 현재 본도에는 人糞을 처리하는 돼지변소의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재래 변소는 농업구조에 順機能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곧 人糞은 돼지가 처리하고, 돼지의 人糞은 보리짚과 더불어 좋은 거름으로 만들어진 다. 이러한 순환 농업은 농부들에게 손쉽게 퇴비를 확보시켜 준다. 雞糞도 거름으로 이용되지만 돼지변소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돼지가 소 다음으로 숫적인 우세를 보이는 것이다.

歲 時 風 俗

歲時風俗이라 함은 생활에 리듬을 주는 週期傳承의 儀禮的인 生活行爲이다. 대체로 매해마다 一定한 時期가 되면 慣習的으로 反復되는 生活行爲로 時季性이 특히 강조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農業國이었던 우리 나라에서는 歲時風俗과 農事와는 밀접한 關聯을 맺어왔다.

이번 翰林邑 明月里 學術調查期間 동안 그곳의 歲時風俗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明月里는 海岸과는 좀 떨어진 中山間 마을이며, 옛부터 양반 마을로 알려져 있음은 특기할 사실이다. 다만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각 가정에 TV가 보급되면서 옛 風習이 자취를 감추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여기서는 陰曆을 중심으로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금번 調查에서는 주로 新舊間 風習과 매주 쑤고 장(醬)담그는 것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濟州道만이 지니는 獨特하면서도 疎忽하기 쉬운 風俗이기 때문이다.

1. 正月

1) 新舊間

신구간은 立春前 10일부터 1주일 정도의 期間(설달 그믐에서 정월초까지)이다. 이 기간은 모든 鬼神(집에 있는 조왕신, 어귀신, 토신, 칠성신, 문전신 등등)이 하늘에 報告하러 올라간다. 이렇게 집안에 귀신들이 없을 때, 이사하거나 집을 개축하고, 집안의 나무를 자른다. 그래야만 鬼神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신구간은 또한 新·舊의 인수 인계 기간이라 해서 新官도 舊官도 모르듯이, 새 鬼神과 묵은 鬼神이 교체하면서 서로 모르고 눈 감아 주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날을 보지 않고 이사하고 집을 개축하는 기간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사할 때는 “막은 방”(方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해만 막는 “연살”과 일평생 막는 “명삼서”가 있다. 신구간에 이사할 때는 날을 보기도 하며 대주(가장)의 막은방은 가지 못하고, 식구 중 일부가 막혔을 때는 우회해서 이사가게 된다. 하지만 당해만 막는 방은 돌아서(우회) 갈 수 있지만 명삼서(평생 막는 방)에는 절대로 못간다. 만약 이를 가볍게 여기고 어겼을 때는 본인이 죽거나 패가망신하게 된다고 한다.

또 이사할 때는 빗자루질을 못하게 한다. 왜냐면 빗자루질을 해버리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不運을 주게 된다. 이사가는 사람이 옛날 살던 집의 먼지를 쓸어 담아서 새로 이사하는 집의 눌묵(온돌을 난방하기 위한 헛간 아궁이)에 담으면 幸運이 있게 된다고 하지만, 이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빗자루질을 못하게 한다.

또 이사할 때는 雜鬼가 좇아오지 못하도록 朱書로 符를 붙이기도 한다.

2) 정월 초하루(설)

정월 초하루는 설날이다. 옛부터 舊正을 쇠었는데, 日帝時代부터는 新正을 쇠고 있는 형편이다. 아침에 새 옷을 갈아 입고 차례를 지낸다. 이때 큰집(장손)에서는 도제라 해서 四代祖까지 모시게 된다. 차례가 끝나 세배를 하며 상대방의 실정에 맞게 덕담을 하게 된다. 세배는 과세라 해서 동네 어른들과 외가, 처가집을 돌아다니는데 보통 열흘 정도 걸리게 된다.

또 설날에는 農占이라 해서 보리뿌리를 뽑아 그 해의 豐凶을 헤아리고, 콩방울로 숫자를 세어 점치기도 한다.

3)立春

입춘은 새 철이 든다고 해서 철드는 時間에 대문, 조왕 등에 春榜을 써 붙이는데, 立春大吉, 穀食豐盛, 除厄, 賢婦德 등의 내용을 적는다. 즉 한 해의 소원이나 福을 祈願하는 것이다.

이날은 정월 대보름보다 더 정성해서 쌀밥에 고기국을 끓이며 싸움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女子의 경우 남의 집에 가서는 안된다. (정월 초하루도 마찬가지이다) 立春날 잘못은 그 한 해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謹慎해야 된다. 또 이날은 “푸는 채”를 엮어두면 좋은 곡식은 그 푸는 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한 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4) 정월 대보름

民間에서는 정월 한 달 사이에 무당을 빌어다가 農事豐興, 遊畜豐盛을 빌며, 또한 액막이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토신제, 칠성제, 문전제, 조왕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토신제는 “안택”, “터신제”라고도 하는데 정월 상달에 집안에서 택일해서 家畜繁殖, 五穀豐盛, 橫厄除防, 물리열려 등을 祝願한다. 이 토신제를 지낼 때 제관은 몸이 비리거나 어떤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루떡 4개와 밥 4개를 쟁상에 올리고 과일로는 유자를 2개 올린다. 폐백, 희생이라 해서 비단도 올리며, 날고기는 창자만 빼어내어 비늘없이 생채로 올린다. 평을 올릴 때는 털만 빼어서(날것으로) 올리는데, 최근에 명태를 대신 올리는 경우가 많다. 또 이 토신제를 지낼려면 깨끗한 곳에서 3일 정도 새끼줄을 치게 되며, 음력 정월 한달 내에 해야 한다. 2월은 썩은 달이라 해서 告祀를 지내지 않는다.

칠성제는 命을 비는 것으로 고광(광)에 뱀이 얼르지(顯) 않게 해줍사는 것이다. 왜냐면 뱀이 집안에 얼르게 되면 厄이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엔 칠성제가 칠월 칠석날에 법당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밖에 문전제, 조왕제(부엌 아궁이)가 있는데, 이들의 내용도 위와 大同小異하다. 또 이런 告祀를 지내려고 할 때는 집안이나 동네에 喪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

정월 보름날은 떡도 해 먹고, 運數를 점치게 된다. 윷놀이, 콩윷, 토정비결로 한 해의 운수를 占치기도 한다. 떡치기라고 해서 쌀가루를 시루에 넣으면서, 떡징(충)마다 백지나 창호지에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써 넣는다. 이렇게 해서 떡을 찌 후에 떡이 잘 익으면 한 해의 운수가 좋고, 설거나 이상하게 되면 그해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한다. 또 방송(연 낙하시키기)이라 해서, 설달 그믐에서 정월보름까지 연날리기가 성황을 이루다가 정월 대보름에 연을 낙하시킨다. 그 연의 낙하지점이 깨끗하면 행운이고, 불결하거나 나무 등에 걸리게 되

면 불행하게 될 조짐이라 한다. 이 때 연에다 떡을 떼어 조금씩 붙이기도 하고 “멀리 잘 갑서”라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한다.

2. 사월

사월 초파일은 佛誕日로 관등놀이와 씨름이 행해졌다. 관등놀이는 동네 중심지 거리에 장대를 세우거나 나무에 줄을 매달아 燈을 걸고서 저녁 어두울 때 부더 자정까지 환히 불을 밝힌다. 지금은 절간에서만 대낮부터 행해지고 있다. 씨름은 어른과 청년들이 모여 어울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3. 오월

端午前에 寒食이라 해서 명절이 있으나 다른 명절들보다 검소하며, 청명·한식이라 해서 묘제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다. 백이 숙제가 한식날 죽었다고 해서 이날 고사릴 캐며 무덤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또한 馬上의 奉寒食이라 해서 이날을 기점으로 생겼다는 얘기도 있다.

五月 端午에는 힐러운 태(苔)를 잘 입히고 산담들을 정비하며, 엉경퀴나 찔레꽃 가시 등을 캐기도 한다. 정성이 약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이날 해뜨기 전에 캐는 풀은 모두 약이 된다고 하며 이날 백 가지 풀을 캐어 백중날 골(보리골)을 담그고 선달 남평날에 엮을 해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고 한다.

4. 유월

유월 보름은 流頭날이지만 특별한 風習은 없다. 다만 이날 고냉이(고양이)코 맨도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날씨가 더워진다는 날이다.

유월 스무날은 닭 삶아 먹는 날이다. 혼자서 닭 한 마리를 해뜨기 전에 동쪽을 향해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5. 칠월

1) 칠월 칠석

七夕날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얘기를 하게 된다. 이날을 기해 하늘에 오작교를 만들었던 까마귀는 머리가 하얗게 벗겨진다. 견우와 직녀가 이들의 머리를 밟고 지났기 때문이라 한다.

또 이날, 절간을 찾아 命이 짧은 사람은 命을 길게 해줍사 하는 기원을 한다. 이때 실 같은 폐백을 부처님앞에 바치기도 한다.

2) 백중날

칠월 보름은 백중날이라 해서 고사를 지내게 된다. 百重祭, 혹은 테우리제라 해서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백중 전날 음식을 차려서 그날 밤에 祭를 지낸다. 이는 최초로 죽은 테우리귀신을 위해 마소꾼들이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마소에 탈없이 해달라고 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이날은 祖上이나 귀신 중에 저승가다 걸린 사람이 있으면 잘 가게 빈다. 이는 그 조상들이 往生極樂해야 자기들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며, 후손을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確信때문이다.

백중날 비가 내리면 흉작이 되고, 마늘을 심게 되면 잘 된다고 한다. 또 글엽푸기 매면서 내(川)가 몇 번 내릴 것인가를 점치기도 한다.

백중날에 “물 맞으레 가기”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여름 피서인 셈이다. 보통 명월(明月) 산물이나, 간혹 어승생까지도 가지만 대체로 “조물”에 간다. 여기에는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몰려서 그 근처가 마치 오일 시장 같다고 한다. 사탕대죽, 강냉이대죽(옥수수), 복성개(복숭아), 쌀밥을 갖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맞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한다. 또 땀띠 난 어린이들이 이때 물을 맞게 되면 땀띠가 들어간다. 보통 집에서 검질(검) 매면서 “재게 이 일 허여동 물맞으레 가게”라고 애들을 보채듯이, 물맞는 일이 얼마나 기대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어쨌든 백중이란 백가지 병이 낳는다 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도 한다.

6. 팔월

1) 팔월 초하루

음력 팔월 초하루는 벌초하는 날이다. 특히 이날은 대소분, 또는 왕소분이라 해서 여러 자손들이 한 곳에 모여 조상묘들을 함께 벌초하게 된다. 이렇게 벌초할 때면 봄철에 힘들어서 시제를 못 올렸으면 이때 벌초하고 난 후에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2) 추석

팔월 보름은 추석이다. 설날이 아침, 단오가 점심에 해당된다면, 추석은 바로 저녁에 해당되는 셈이다. 추석날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며, 정성을 하는 집안에서는 성묘를 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편 갈라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한 쪽의 우두머리를 편장이라 한다.

7. 구월

음력 구월 구일은 重陽節이나 별다른 풍습은 없다. 다만 심방(무당)들이 굿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扶助하게 된다. 이때 심방들은 자기 자신들의 행운과 業이 잘 되기를 빌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부탁을 쉽게 하고자 함이다.

8. 동짓달

1) 동지

동짓날은 팔죽을 썬다. 이 팔죽을 먹으면 각종 병을 퇴치하게 된다고 믿는다. 왜냐면 팔은 비린 것등 모든 액을 방지하는 것(붉은 색팔)이라 믿는다. 동지가 열흘 전(초승)에 들게 되면 “애기 동지”라 해서 애기 있는 집안은 팔죽을 썬지 않는다.

2) 메주

동짓달에 메주 썬고 설달에 장 담근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장(醬)은 신구간 전에 담가야 한다.

콩을 삶을 때는 동짓달을 택한다. 시월은 벌레가 많이 일게 되고, 정월은 큰 달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보통 재료로는 메주콩(장콩), 청태콩 등을 쓴다. 청태콩이 더 맛있으나 수확량이 적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콩을 삶

을 때 보통 두말때기 솥을 사용하지만, 크제는 네말때기솥에서 작제는 한말때기 솥까지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메주할 때 중요한 것은 택일하는 것이다. 보통 개, 토끼, 닭, 염소, 말날을 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집안 식구중에 해치(띠) 있는 날은 피하게 된다. 또 忌避日로서는 주부의 생리기에는 절대 피하게 된다. 그밖에 원숭이날은 낫은 일이 생기며 사람 모양이라는 데서 피하고, 소날은 소처럼 콩이 훌레기(물씬하게) 삶아져 니치름(침) 질질 흘리는 것 같다 해서 피한다. 범날은 寅과 人의 발음이 같다 해서 피하며, 뱀날은 모양이 길기 때문에 메주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부터 삼간다. 또 용날, 쥐날도 거의 피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콩을 다 삶게 되면 도구리에 퍼 넣어 버선 신고 밭거나 찰리(부대자루) 속에 담아서 밭게 된다. 방해특에 넣고 뺑거나 낭고래도고리(나무로 된 큰도가니)에서 빨래하는 막개로 찡는 경우도 있다.

삶은 콩을 찢어 반죽처럼 되면 손으로 적당한 모양(보통 직육면체)으로 떠서 벗짚으로 두개씩 묶어 방안이나 마루에 매달아 둔다. 혹은 맥속에 콩깍지를 넣어 그 속에서 한 달 정도 툄운다. 곰팡이가 피게 되면 시냇물에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담근다. 소금물은 보통 물 두 허벅에 소금 큰말 1되를 넣거나, 허벅 열되들이에 소금 대승 3되를 넣으면 적당하다. 장은 담글 때도 콩삶을 때와 마찬가지로 택일을 잘 해야 한다. 감제씨(고구마) 놓을 때나 메주할 때나 여자가 몸 비리는 날(생리기)은 절대 피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예외적으로 있게 되면, 물을 길어다가 장항(독) 밖을 씻는다. 그러면서 “죄 벗겨 줘서”라는 얘기를 주술적으로 한다.

두 달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3월 중순경에 된장과 간장을 분리시키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꺼내야 장맛이 있다고 한다. 된장에 벌레가 이글거리게 되면 소금을 반 사발씩 한말의 양의 된장에 뿌린다. (물론 몸 비리게 되어도 소금을 뿌린다고 함) 된장 위에 갓쓰는 것(회계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숯불과 고추를 넣어 맛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장담기에는 여러 금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택일이 어려운 집안에서는 콩삶는것을 설달 그믐날에 행하면 좋다. 왜냐면 동짓달 그믐에 콩삶고 설달 그믐에 장 담근다는 얘기가 있듯이 설달 그믐날은 날을 보지 않는다.

方 言

目 次

- 0. 調査経緯 및 方法
- I. 衣生活 語彙 III. 住生活 語彙
- II. 食生活 語彙 IV. 地名

0. 調査経緯 및 方法

0-0. 본 보고서는 1984년 8월 1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3박4일 동안 明月里에서 조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衣·食·住 生活에 관한 語彙와 地名이다.

明月里는 비교적 해안에 가까운 下洞으로부터 中洞, 上洞 순으로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중산간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옛날은 濟州島 西部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班村이라는 궁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衣·食·住 生活에서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이 많을 것으로 보았고 地名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였다.

0-1. 조사에 임하기 전에 조사자들은 質問調査의 기본이 될 語彙를 項目別로 정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자료(학술 조사보고서, 국문학보)를 참조하였다.

제보자는 조사 결과, 衣·食生活 語彙에는 할머니로 住生活 語彙와 地名에
는 할아버지로 편중되었는데, 때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
을 경우에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룹 인터뷰」로써 조사에 임했다.

班村이라는 性格 때문인지 方言은 ‘하루바빠 버려야할 천한 것’이라는 생각
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런 경우 같이 있는 젊은분들이 설득
해 주려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가장 곤욕을 치른 부분이
기도 하였다.

0-2. 조사 첫날은 주민들의 意識과 적당한 제보자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가벼
운 기분으로 下洞을 택했다.

둘째날은 中洞과 下洞에서 조사를 행했다. 家屋構造에 관한 것은 옛 초가를
지었던 분을 찾을 수 있어서 껍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초가구조가
없어서 어느 정도 보존된 한 두 집을 선정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下
洞에서는 ‘민속촌 지정설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헐어’ 버렸기 때문에 초가가
거의 없었다.

삼일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上洞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地名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사일째는 中洞에서 보완조사를 함으로써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0-3. 본 보고서는, 우선 조사된 語彙를 모두 제시하되 제보자의 설명이 있
는 경우만 따로 작은 항목을 설정하여 轉寫된 내용을 밝혀 놓았다. 地名의 경
우에는 제보자의 설명—내개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지만—을 얻어 들을 수 있었
던 것들을 우선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일괄 제시하였다.

0-4. 조사를 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된 것은, 같은 대상을 놓고도 그 쓰임
에 따라 달리 이름하는 경우(쌀죽:곤죽(흰죽), 월미, 미음)와 작은 짚신(초신) 하
나에도 여러 가지 부분 명칭이 있는 경우였다.

I. 衣生活 語彙

I-1. 衣服 : 갈중이, 굴중이, 갈적삼, 두루막, 도복, 판디, 장옷, 고장중이, 소중이(소중기), 단중이, 저구리, 접저구리, 적삼, 붓뒤창옷, 배부래기, 어깨다리(어깨매기).

I-1-1. 勞動服 : 갈중이, 굴중이, 갈적삼

- 갈중이 : 남자덜 감물 들영 여름에 일헐 때 입꼭 겨울에도 소개바지 우의 끼와 입꼭.
- 굴중이 : 여자덜 감물 들인 걸로 홀락허게 치마같이 해영 가달 너르게 영 파닥헌 거, 여름 낱 입는 거. 파닥파닥허난 무시거 허영 무경 다넘주게.
- 갈적삼 : 남자나 여자덜 그냥 일헐 때 입는 거.

I-1-2. 禮服 : 두루막, 도복, 판디, 장옷, 치마저고리

- 두루막 : 광목두루막, 남자덜 웨출헐 때 주로 입는 거. 바지저고리에.
- 도복 : 소미 진 거. 멍지로 회게 헌 거. 베로도 허꼭. 그걸 입어사 장개를 갖 주기, 도복 위에 판디 입꼭 허영.
- 판디 : 도복 위에 입는 똑 도복 닮은 거, 거무룽헌 거.
- 장옷 : 새각시, 옛날에 멍지로 헌 거. 푸리고 붉고 헌 것을 하나는 입고, 하나는 대강이에 쓰고 행 시집왔주게.
- 치마저고리 : 광목, 오경목, 보통 웨출헐 때 입는 옷이라.

I-1-3. 平常服 : 고장중이, 소중이(소중기), 단중이, 소개저구리, 접저구리, 적삼.

- 고장중이 : 부인네는 강알 터주왕 바지처럼 헌 거 겨울에 해영 입언. 광목이 영 모면, 미녕으로 허주. 옛날 바지는 겨울 석덜 입고 봄 가을은 고장중이 입고 그리헐지.
- 소중이(소중기) : 이제 살마다, 옛날은 소중기. 속옷엿 헌디 소중이엔 골아 나서.
- 단중이 : 찻름치허게 해 가지고 요만이 오르게 허영.
- 소개저구리 : 겨울에, 저굴 저구리.
- 접저구리 : 봄에 솜 아이 창, 안팓만 부짱 허는 거. 여름엔, 봄 가을엔 훌 거.
- 적삼 : 강항로적삼, 색멍지적삼, 고른멍지적삼, 오경목적삼.

I-1-4. 아기옷 : 붓뒤창옷, 배부래기, 어깨다리(어깨매기).

- 붓뒤창옷 : 애기 처음에 나서 베로 맨들앙, 옛날은 몸을 안 곱지서, 그런 걸 입으면 솔강솔강 솔이 솔그랑허난 근지럽지 않게 맨지락허게.
- 배부래기 : 애기 배를 감추는 거, 보호하는 거.
- 어깨다리(어깨매기) : 요즈금 ㄱ트민 난닝구ㄱ찌 입는 게 옛날은 다 어깨매기라 해서, 요 속읍에 입엇주게, 어른덜도.

I-1-5. 其他 : 행경, 세타, 마구자(마구지).

- 행경 : 바지를 펄렁펄렁 못허게 묶으는 거.
- 세타 : 막 미녕썰로 짠 거.
- 마구자(마구지) : 동전도 짓도 엮는 거. 곶도 엮는 거. 겨울에 덧저고리식으로 입은 거. 마구지엔 섭도 엮어.

I-2. 보선 : 소개보선, 좁보선, 훌보선, 끌레보선.

- 소개보선 : 소개 논 거.
- 좁보선 : 여름에, 소개 아이 '논 거.

미녕보선 광목보선 주장이여. 광목보선 신으민 벨허게 곤 거 신엇젠 허주게.
※ 버선목은 데싸방 알지만 사람속은 모른다.

I-3. 모자 : 방립, 풍둥이(풍맹이, 풍둥이), 후양(휘양), 가죽감티, 정등병것(정당벌립), 털벌립(결벌립, 털병것), 촌갱이, 샷갓, 서대샷갓, 너서리, 패랭이, 감티, 두건, 천릭, 소건, 대건.

- 방립 : 상제가 멀리, 추헌 거 안 보젠 쓰는 거, 가리는 거.
- 풍둥이(풍맹이, 풍둥이) : 옛날 추운 때 대가리에 쓰는 거.
- 후양(휘양) : 풍둥이허고 휘양허고 호끔 뜨나. 후양은 영 귀 꺾어그벙에 이레 영 졸라맨 거 후양. 풍둥인 요영 뒤터레만 허여진 거.
- 정등병것(정당벌립) : 줄 번어 가는 거, 정당으로 만든 거.
- ※ 병것(병긋) : 밤이랑 아방 쓰꼭 낮이랑 아덜 쓰꼭.
- 털벌립(결벌립, 털병것) : 촌갱이 우에 쓰는 쉼터럭으로 만든 거. 털벌립도 옛날엔 많아. 병긋엔도 허꼭. 이젿말로 패랭이.
- 촌갱이 : 새로 느람지 비슷허게 엮어 가지고 저 의장같이 특 허게 쓰고 이디 쉼터럭 특 쓰고 허문 벨 장이쉬가 오라도 옷 아니 져주게.
- 샷갓 : 우리 여잔 옛날 샷갓백의 아이 셋져. 게고 샷갓도 ㄱ쫼현 게 나윈.
- 서대샷갓 : 젊은 새악시덜은 막 큰 샷갓. 대로 졸은 겐디, 막 이만이 행 겐디 이렇게 썩 안지른 비오라도 꼬딱도 안 허주게.

濟州島部落誌(Ⅰ)

- 패랭이 : 대패랭이, 보리낭패랭이, 밀낭패랭이. 여름에 여자덜만.
- 너서리 : 밧되서 임시 쓰젠 졸로 만든 거.
- 감티 : 요렇게 모자현 거. 감티가 모자. 밖의 나갈 때 추우민 쓰는 거. 요런 디 고장 다 맨들아서 델리꼭, 다, 브고락허게 험벅으로 만들엉, 오라가지 색백이 노면서 옛날은 그렇게 만들었어. 옛날은 다 그제 질로 고급으로 들엉.
- 두건, 천릭, 소건, 대건 : 상제가 쓰는 거.

I-4. 신발 : 남신, 가죽창신, 초신, 미투리(미토리), 신각신, 비빔각신.

• 남신 : 아주 옛날 우리 이 켜판허난, 게 짚신이란 헐 수 엇이 진 디 대닐 수 엇이란 이녁 자진허영 거 우리 한국에서 맨딩 거주기. 영 통낭 원통 허영 오그라진 쉼 해그네 꺾주앙 파주게. 그 쉼2란 꺾쉼엔 허꼭.

- 가죽창신 : 결혼헐 때나 신는 거.
- 초신 : 짚신, 신각신, 비빔각신, 미투리 다 초신.
- 신각신 : 새각시 신는 거. 곱닥허게 노랑물 들이꼭 허멍 허는 거.
- 비빔각신 : 자루 부벼창 허는 거.
- 미투리(미토리) : 아주 신사신. 새각시덜 신는 거. 시집가민 시아방이 곱게 맨들어 줘, 며느리신디 삼아 주는 거. 짝 댓 개씩내영 신는 거. 솜씨 있는 사름이 맨드는 거.

※ 섭죽 : 짝 곱아 가그벙 끌르는 거. 곱게 그 짝 영영 매끄는 거?

신꼬지 : 짝 께는 대막대기.

I-5. 其他

I-5-1. 장신구 : 얼레기, 쉼빋, 빈네, 셋경.

I-5-2. 침구 : 요, 이불, 꿀레이불, 누빈이불, 홀이불.

I-5-3. 바느질 용구 : 실, 바놓(바놓대), 바놓상지, 그세, 줄레, 골매, 실패, 다루에, 다듬이(다다미), 서답막개, 안반, 홍지때, 윤디(인두).

- 줄레 : 바놓 께는 거.
- 다루에 : 영 조룩 신 거 불 담아그네 영 마주 심영 영 삭 옷감 손질허는 거.
- 다듬이(다다미) : 풀 허는거.
- 서답막개 : 서답막개 물막개 틀러. 물막개 빨래헐 때 쓰는 거고, 서답막개는 풀헐 때 뚜들리는 거.
- 안반 : 돌안반, 낭안반, 광목덜 이불 허여그네 두드릴 때 밑에 놓 두드리는 거, 막개로.

I-5-4. 옷감 : 미녕, 광목(직광목), 옥영목, 멍지(멍주), 베, 모시, 조폐, 황폐, 양단, 겁단, 모빈단, 호박단.

- 미녕 : 갈중이 허는 거.
- 광목(직광목) : 광목 그냥 짠 나온 거. 풀 안 허영 펼겅케.
- 옥영목 : 막 살아세영 허영케 나오는 거.
- 모시 : 하얀 옷.
- 조폐 : 노리롱헌 거. 베보다 좁진 거. 삼으로 천 거.
- 황폐 : 조폐로 만든 건디 굵은 건 모양이라.
- 양단 : 비단 종류주.
- 모빈단 : 치마 저고리. 웨출복 허연 입었지.
- ※ 험벅 : 못쓰는천. 존존헌 거.
- 못앙 : 뜨게질라 못앙, 옛날말은.

I-5-5. 케 : 백장 우의 올려 낭 황옷덜 놔 두는 거. 케 우의 천장은 천판, 아래 널 판은 지판, 옆원 모마기, 뒤편 들래.

II. 食生活 語彙

II-1. 飮食

II-1-1. 밥 : 곤밥(술밥), 멧밥, 줍쌀보리밥(스래기밥), 보리밥, 통보리밥, 조팍, 피밥, 반지기밥, 대죽밥.

- 곤밥(술밥)
- 멧밥 : 켓상에 올리는 밥. 곤밥 술밥 그 밥이 그 밥인디 멧밥.
- 줍쌀보리밥(스래기밥) : 보리 꼴앙 허는 거. 옛날은 돌궂래에다 꼴앙 허며는 꺼끌꺼끌 허니까 그놈을 멧둘에다 꼴앙그넹게 훑은 쌀이 잇곡 바로 아래 존존한 쌀이 잇곡. 존존흔 쌀이 소래기.
- 보리밥 : 보리쌀로 허는 건 보리밥.
- 통보리밥 : 보리쌀 그자 궂만이 곱게 다까당 꼴지 안허영 허는 거. 옛날엔 그 거민 그건 아주 맛 존 거. 쫓 농곡 허영 막 좋게 허영.
- 반지기밥 : 곤쌀 보리쌀 반씩 섞영 헌 밥.

II-1-2. 떡 : 췌기떡, 보리떡, 지침떡(조침떡), 흰설기(제편), 시리떡, 술변(술벤), 절편(절벤, 곤떡), 인절미, 빈떡(빙떡), 속떡, 돌레떡, 고적떡, 대죽떡,

濟州島部落誌(I)

똥떡, 삼메떡, 보리적, 오메기떡, 웃찌게, 새미떡(새미), 지름떡, 물떡, 송편, 기죽떡, 감저떡, 밀주생이떡, 감저주시떡, 누까꼬루떡, 다데떡, 임지.

- 채기떡 : 보리 쏘아낭 허영 먹는 거. 둥글락허게 허영 팔월달 뉘민 밧되 가 그네, 출왓디 강, 보리밥 허영 술 맨들앙 막 경허영 그 물 툇라노명 맨들앗주.
- 보리떡 : 하여튼 보리로 맨든 건 보리떡.
- 지침떡(조침떡) : 시리에 조로 만든 거.
- 환설기(제편) : 서우맹질(정월명절)에 나룩썰 허연 친 거.
- 시리떡 : 시리에 친 떡.
- 솔변(솔벤) : 곤떡인디 반돌모냥. 시리에 솔잎 낭 찌니깐 솔벤.
- 절변(절벤, 곤떡) : 곤떡, 둥글락헌 떡. 썰 뵈아서 곤썰 뵈아그넵 정 우마 기 뵈비영 솟되 솟앙.
- 인절미 : 곤떡 뇌기반듯헌 거. 은절미판은 중간에야 난 거.
- 빈떡(빙떡) : 모멸썰 허고 저 밀가루로. 모멸빙떡.
- 속떡 : 속으로 헌 떡. 맛 이서.
- 돌레떡 : 그저 납작허게 얇롭게 허여. 바우만 두둑헌 거. 모멸돌레, 조돌레, 보리돌레도 이서.
- 고적떡(고적) : 돌레떡인디 영장밧되 마흔개 허영 친척덜만 고적 받지는 거. 수정이 싹주게. 이제는 그런 거 엇어.
- 대죽떡 : 대죽으로 빵ㄱ치 맨들앙 솟되 쳐그네. 무당덜 굿 허는 디 그 대죽떡 허여그네 막 부치메, 멋허켄 허명 막 푸다시 허곡. 맛 이서.
- 똥떡 : 아기덜 저 베소에서 낳난 때 맨들앙 친 사람 대접허랜 막 느나주는 거. 경 허여야만 아기가 멩 진덴 허주게.
- 삼메떡 : 모멸로 송편 비슷허게 맨드는 거. 삼메떡, 모멸떡, 곤썰로도 삼메떡 맨드는디. 보리삼메, 밀삼메도 셔.
- 보리적 : 보리 쏘앙 지정.
- 오메기떡 : 좁쌀가루로 찌난 거. 술 오메기.
- 웃찌게 : 지름떡 지정 고망 베롱베롱허게.
- 새미떡(새미) : 수세 낭 똑똑 바우 좁앙.
- 지름떡 : 고장추룩 둥글락허게 지름에 튀겨 낭.
- 물떡 : 새미 논 떡.
- 송편 : 둥글락. 쉬 담앙 옆으로 좁앙, 솟모냥.
- 기죽떡 : 밥허영 누룩 서경 낭 쩜.
- 감저떡 : 감저 낭 헌 떡.
- 밀주생이떡 : 이제사 셔게. 밀이 어디 셔, 지금. 옛날도 질 어려와난 거난.
- 감저주시떡, 누까꼬루떡 : 송년에.
- 다데떡 : 모멸, 곤썰, 밀로 둥글락허게 손바닥만 해.
- 임지 : 지름주시 우려 텡 떡 해.

II-1-3. 범벅 : ㄱ를로 텡 거, 이 버무리는 거는 범벅이라고 말허엿주게. 모멸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팜벅, 보리팜벅, 대죽팜벅, 숙팜벅, 툫팜벅, 호박팜벅, 는쟁이팜벅*, 밀팜벅, 밀채팜벅, 웨밀코를팜벅, 감저주시팜벅, 조팜벅, 누룩낭팜벅.

*는쟁이(ㄱ를): 모덜 풀아나쁜 나오는 ㄱ를, 즈베기도 허영 먹곡 팜벅도 허영 먹곡. 떡은 잘 뉘도 안허곡 시거멍 현 게 원 못쓰는 ㄱ를.

II-1-4. 죽: 껌죽, ㅁ덜죽, 곤죽(흰죽), 미음, 월미(원미), 콩죽, 녹디죽, 국죽, 툫죽, 밥죽.

•곤죽(흰죽): 쌀 놓으민 곤죽. 곤죽은 이제 흰죽인디, 미음엔 허는디, 미음 ㄱ라 곤죽.

•미음: 미음은 환자덜허곡 촌엔 옛날 이 저 늙은 어른덜 밥 잘 자시지 못허민 먹는 거. 곤죽허고 미음허고 흰죽허고 혼 가지.

•월미(원미): 월미는 그거 미음게. 그건 어디 사람이 죽거나 무슨 거 해서 이 상에 올리는 거. 생사람 먹는 건 월미라고 안여. 건 일름이, 구분이 틀려.

•국죽: 보리 소래기만 뉘 쉼 먹는 거.

•밥죽: 밥만 뉘 현 죽.

II-1-5. 숭년음식: 물룣, 누룩낭뽀리, 하늘래기뽀리, 숙, 감저주시, 누까ㄱ루, 채팜벅.

•물룣: 과당 딸렁 먹곡.

•누룩낭뽀리: 물리왕 ㄱ를 맨들앙 즈베기 허여그네, 껌질 새 꺼꾸래서 댕 ㄱ를에 찍엉 누룩낭팜벅.

•하늘래기뽀리: 청 앓정 댕 것에 조합허영 먹곡.

•숙: 그 저 식량 부족에 도움이 될 걸로 해서. 이 밀ㄱ를 쪽금 노는 채 마는 채 해서. 이제 게 얼썰*로 해서.

*얼썰: ㄱ루 같은 걸 약간 논 걸 말 허는 거라. 많이 놓질 못헐 경우에 얼썰 이라는 거지. 게난 그 풀 뜯어다 뉘 현 거주게.

•누까ㄱ르: 보리 까까난 다음에 나오는 채ㄱ를. 요새 뉘야지도 잘 안 먹어. 거 맛도 좋아고 소뉘.

•채팜벅: 요즈음 사료는 고급이라 순 이거 배합 안연 거. 밀 다까난 채, 사료 이 누까에 거 배합해서 사람 먹어나고.

II-1-6. 술: 감주, 한주, 청주, 막걸리, 탁배기(탁주, 뉘술), 곡즈(누룩), 윈다리(순다리).

•감주: 제사 때나 멧질 때 들ㄱ를 현 술. 좁쌀로 허영 골 농곡 허영 조팜허영 골ㄱ루 묻혀당 그거 걸렁 딸리민 감주. 쌀도 뉘 허곡. 좁쌀이 마치 맛이 있어. 색깔 나곡, 빛깔 나곡, 곤쌀은 뉘긴 뉘여도 허영 허고, 맛이 엇주게. 게난 좁쌀이, 엇도 좁쌀이 나고.

濟州島部落誌(Ⅰ)

- 한주 : 고소리에 다끈 술.
- 막걸리 : 막걸리사 집에서덜 막, 지금도 기루민 담양 먹곡. 이제 막걸린 뉘 술이라 뉘술, 전원 뉘술.
- 청주 : 좁쌀로 허영 막걸리 그저 뉘술 만들앙 꼴라 앓으민 위엿 거 거리며는 청주, 아랫 거는 뉘술.
- 탁배기(탁주, 뉘술) : 뉘술, 뉘 막걸리를 탁배기랜 허여낫주게.
- 순다리(순다리) : 밥 썩여그네 누룩 합허영 현 것ᄃ라 순다리.

Ⅱ-1-7. 김치 : 배추김치, 늬배김치, 츠마기김치, 통짐끼, 동지김치, 갯늬 멀짐치, 꿩마농김치, 나박김치(물짐끼).

- 통짐끼 : 무슨 그냥 담은 거.
- 동지김치 : 여름에 배추 곱은 거 동지로 쫄라그네.

Ⅱ-1-8. 상에 올리는 거 : 탕쉬, 게영, 멧밥, 붓지.

- 탕쉬 : 갯상에 올리는 반찬. 채소 보고 탕쉬. 호박탕쉬, 콩늬멀(콩질름) 탕쉬도 이서.
- 게영 : 갯상에 올리는 국을 쏜는 거주.
- 멧밥 : 갯상에 올리는 밥.
- 붓지 : 접시에 탕위에 ᄃ찌 밀ᄃ루 지진 거 세개 영 쪼끔 썰영그네 상에 올려 놓는 거. 준붓지, 큰붓지, 족은 족은 허게 혼 접시, 질게 혼 접시.

Ⅱ-1-9. 지름 : 강남궐지름, 피안지지름, 돛박지름, 촌지름, 콩지름, 유채지름, 갯늬멀지름, 당배치지름, 유지름, 호배추지름.

- 강남궐지름 : 해바라기가 강남궐.
- 돛박지름 : 머리에 브르고 병 잇인 사름 먹어낫주게. 는작허주게.
- 갯늬멀지름 : 옛날 그 촌 옛날에 난 거. 갯늬멀. 유채 비슷헌 거. 이제도 갯늬멀은 나는데, 옛날 거 더 까망헌 거 잇어.
- 유지름 : 표준말로 참깨라고 허염실 거라. 옛날은 유.
- 당배치지름 : 들머기로 현 지름.

Ⅱ-1-10. 기타 : 즈배기, 게역, 칼국, 엿, 국, 썰.

- 즈배기 : 는쟁이즌배기, 누룩즌배기, ᄃ멀즌배기, 밀즌배기, 보리즌배기.
- 게역 : 보리ᄃ르로 돌코름허게 허는 거. 요새사 저 좁쌀로 허영 미숫가루 허영 먹쥬.
- 칼국 : ᄃ멀칼국, 밀칼국수, 보리칼국수.
- 엿 : 엿은 저 좁쌀로 조팍허영, 좁쌀밥허영 또 고이ᄃ루 따시 거기 문헛당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그거 쟈질앙 딸리며는 막 딸리민 옛 뉘메. 그 옛더래 독 뉘 허민 독옛엔 허고, 뉘지고기 뉘 딸리민 뉘지고기옛이라고 허고. 뉘 건 논 것에. 옛은 그거 혼 가 지에 그리 노는 거 일름을 갈허는거. 호박 노민 호박엇.

- 국 : 배추국, 춘매기국(무수국), 콩누물국, 툇국, 뽕국.
- 쌀 : 모멸쌀, 입쌀, 지장쌀.

Ⅱ-2. 食生活 器具 :

Ⅱ-2-1. 그릇 : 수박기, 계영사발, 늦보시, 종지, 쟈시, 뉘배, 낭정반, 차롱, 쟈통, 뉘약세기.

- 수박기 : 늦사발, 노그릇.
- 계영사발 : 제사 때 계영국 거리는 사발.
- 낭정반 : 낭으로 맨든 쟈반.

Ⅱ-2-2. 항아리 : 항, 통개, 망대기, 단지, 즈막단지.

- 항 : 질 큰 거. 물 질어당 담곡, 짐끼영 장영 담곡.
- 통개 : 합씩헌 건 암통개, 풀랑헌 건 솟통개.
- 망대기 : 젓 담는 거.
- 즈막단지 : 막 족맨 헌 거.

Ⅱ-2-3. 상 : 도리반, 철반상, 쟈상.

Ⅱ-2-4. 기구 : ㄴ래, 절귀, 고소리, 방앗귀, 방앗훅, 시리, 떡판, 우금, 남자, 베수기, 굴그네, 당그네.

- 고소리 : 술 다그는 거, 술 맨드는 거. 불 솥앙 솟되 안정, 영 허영. 항아리 삶은 것에 요리 꼭지 영 달려 그네, 그네 줄줄 나오게.
- 시리 : 큰시리, 쪼근시리, 줍쌀시리, 쟈쌀시리.

Ⅲ. 住生活 語彙

Ⅲ-1. 이문 : 이문지방돌, 이문웃대방, 이문지방, 이문입쟁이, 이문절귀, 굼병새, 주둘이, 주둘이고망, ㄴ른띠목.

- 이문지방돌 : 문이 더 나가지 못허게 허는 돌어라.
- 이문웃대방, 이문지방
- 이문입쟁이 : 이문 양 옆의 지둥을 이문입쟁이랜 쫓아.

濟州島部落誌(I)

- 이문절귀 : 문 중그는 길죽헌 낭.
- 굴병쇄 : 이문절귀 끼우는 낭. 양 옆의 두 개.
- 주들이 : 문 열었다 닫았다 허는 식으로 텨 겨주.
- 주들이고망 : 주들이 끼우는 고망.
- ㄱ른떠목 : 큰 낭 서너개 연결시키는 거. ㄱ르 영 걸치니까 ㄱ른떠목.

Ⅲ-2. 통시 : 옛날은 다 지피 팟주기. 지피, 아주 밑으로 많이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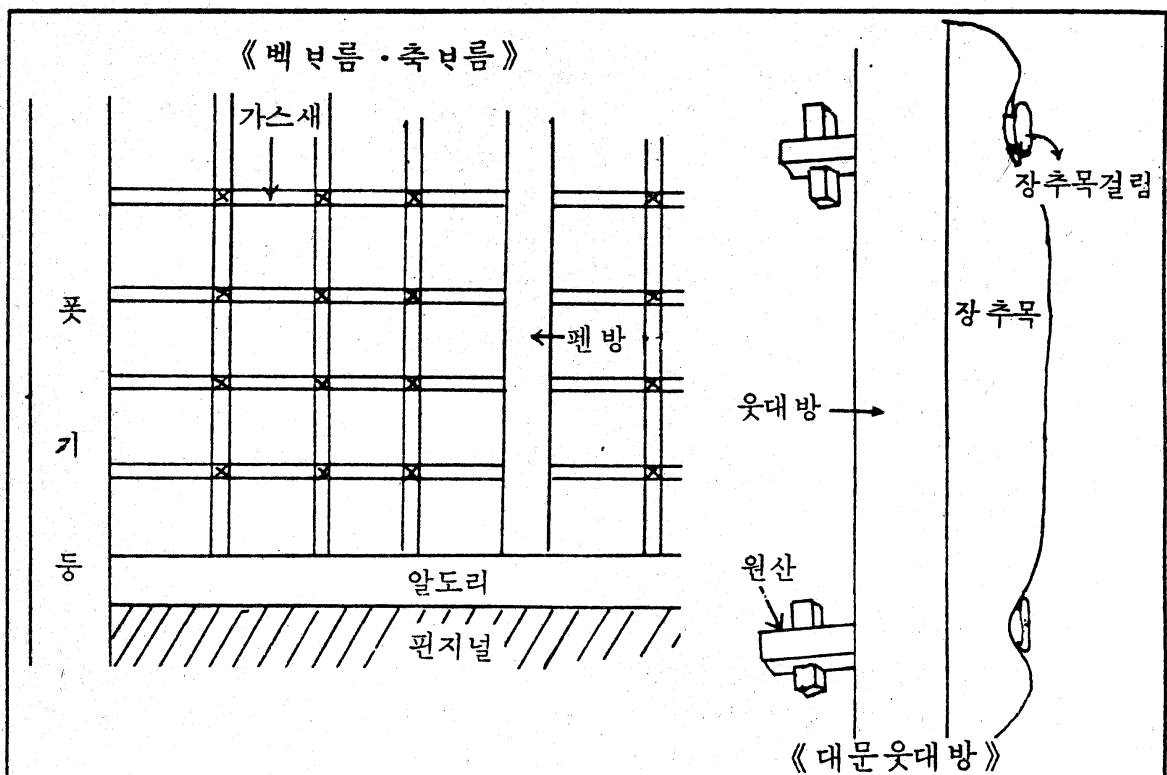
- 디딜광 : 발 짚엉 앓앙 일 보는 디.
- 돛집 : 혼 쪽으로 디딜광허고 돛집허고.
- 간장담 : 사람 보이지 안허게 앞의 담으로 막앗주게. 간장담, 간장 못 보게 허는 거.
- 통시바닥 : 걸름 썩는 디.

Ⅲ-3. 놀 : 곡석이나 지들커덜 영 해그네 쌓아 두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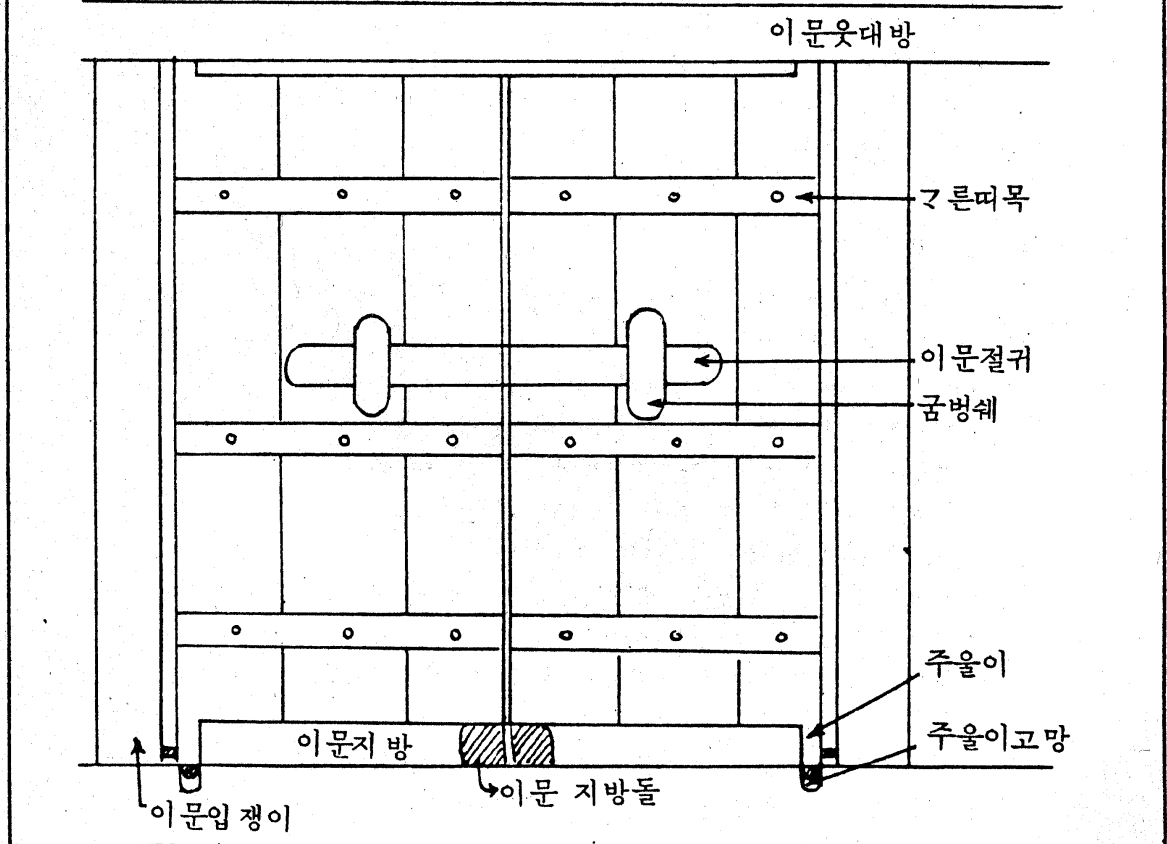
- 놀굽 : 놀 누는 디.
- 나람이(느람지) : 놀 놀게 뒤편 그 우에 비 새지 안 허게 더끄는 거.
- 주지 : 느람이 우의 모자 씌우는 거. 주쟁이엔도 허곡. 놀이 커도 주지가 으뜸이라.
- 누름줄 : 놀에 더끄는 거, 누뜨러지게.

Ⅲ-4. 집

- 호령창 : 집의 영감이 뽕 앓앙 호령해난 그런 자리라고.
- 꿔광 : 옛날 말에 안방. 안 쪽에 잇는 걸 안방이라고 현 겨주게. 육지사름덜은 안방이라고 허든 캄캄허여.
- 섯문 : 정지간허고 상방 사이에.
- 창꿈 : 솟허는 뒤에 쫄글락헌 문. 짐덜 나가게 허는 디.
- 정지뒤편문 : 장방뒤로 나가는 정짓문.
- 정짓문 : 정지로 들어 가는 문이 정짓문이주게.
- 상방뒤편문(마리뒤편문) : 앞잇 건 대문.
- 청방마리 : 쳇방이 청방. 상방에서 정지 들어가기 전의 마룻널 서너개 땡 맨든 디라.
- 뒤편간 : 상방 뒤에 호끄만 허게 논 마리.
- 선천구들 : 올랫거리 이문허고 붙은 방.
- 굴목간 : 굴목 짓는 디.
- 창문
- 지갯문
- 창살 : 선창살, ㄱ른창살, 그자 보통 창살이라고 허주게.



《이 문》



- 결새 : 문고리
- 헛입쟁이 : 꿩광에 미신 것덜 돌아 맨 낭.
- 공쟁이 : 헛입쟁이에 박앙 미신 거 돌아매지게 현 거. 낭으로 박아.
- 지손물 : 집가제에서 떨어지는 물을 지손물.
- 집가제 : 물 떨어지는 디. 처마 보고 집가제.
- 서슬 : 천장 우에 새 털어지지 안허게 허는 존 낭.
- 드릿돌 : 밖거리허고 안거리허고 비오게 뒹문 돌 낭 다리 맨들아.
- 이잇돌 : 낭간 아래 신발 벗는 돌.
- 무똥 : 낭간 신 바로 앞의 마당.
- 올래 : 대문에서 나가는 디.

IV. 地 名

IV-1. 동산

- 시깃동산 : 몰태허는 사람이 그 목에 가서 멧 수 멧 수 허멍 진상해난.
 - 산밭동산 : 호곰 지역이 높은 밧이여.
 - 무덤동산 : 밧 이름인디 호곰 높으니까 무덤동산이주기.
 - 패왓동산 : 동산이난.
 - 관느리동산 : 상여 매어 가단 관 노려나니까.
 - 처남동산 : 처남이 많이 나서.
- 망동산, ㄱ스락동산, 신믈동산, 목주로동산, 들랭이동산, 춘남동산, 꿩남
넷동산, 상기동산

IV-2. 밧

- 하운밧 : 문딱헌디 하운밧, 하운밧.
- 게르리밧 : 자갈이 많기 때문.
- 답밧 : 옛날 탑 쌓아져나시나네.
- 할락산이밧 : 늦으진 안연 밧인디 할락산이밧.
- 굴청밧 : 굴렁밧이니까 굴청밧엔 현 모양이라.
- 왕돌얏은밧 : 큰 돌 거기 잇엇던 모양이라.
- 영밧 : 기정(絶壁) 신 어염 밧.
- 몽송밧 : 옛날 몽송엔 현 사름이 버슬어난 밧.
- 감남밧 : 감남이 하영 셔낫주기게.
- 맛밧 : 집턴디 마당질(맛)허는 마슬베 허여난 밧.
- 시담밧 : 시(三)담으로 담 다나난.
- 송드기밧 : 험재 송드기엔 현 할망이 버슬어난 밧.
- 조풍현밧 : 조풍현이란 사름 버슬어나난.
- 흑붉은밧 : 흑이 붉으니까.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 머중이빔:머중이, 아 거 사람 일름 닻아뵈어.
- 홀탐빔:이 옛날 홀척빔. 호끔 물 께는 디가 시난.
- 처남빔:큰 처남, 남이 셔나니까.
- 넙은빔:넙을 일름. 東朋.
- 윤개빔:윤씨가 폰니까.
- 장개빔:장씨가 벌어나니까.
- 중빔:중이 살아난 절이나 잇어나지 안엿는가?
- 대중빔:중이 잔 드리고 절허여난 빔.
- 논빔:논 아래 잇는 빔.
- 황통빔:황통 거 다 이름.
- 중이빔:준이네 벌어 나니까 준이 빔인디 중이빔 중이빔허지, 쥐빔엔도 허 꼭.
- 빅덕빔:영 비클어지니까.
- 고장남빔:고장남이 많이 셔난.
- 장유역빔:건 사름 일름이고.
- 뵈소빔, 곱뵈빔, 관답빔, 나문빔, 군물빔, 목거리빔, 굴렁굴빔, 녹남빔, 대머들빔, 제성빔, 슬기빔.

IV-3. 왓

- 말왓:그게 아매도 그 옛날 말왓개 말왓개, 이 말거찌 옴틀랑 옴틀랑 허난.
- 머홀왓이지 머홀왓, 둘멍이덜이 만허연 빔 갈기 굿이난.
- 올래미왓:올래 빼어나난.
- 자굴왓:옛날 자굴 출 많이 갈아나니까.
- 귀소리왓:평이 짓으로 짓 소째, 돌아간다고 그래서.
- 말드기왓:부즈가 유산을 분깃해줄 때 말로 뵈어서 쥐나니까.
- 상장이왓:상여를 매 가다가 정거 낫다고.
- 술대왓:대를 세와 가지고 나쁜놈 돌아매서 치고 해난 디.
- 순천질왓:순 천연적으로 뵈 질왓.
- 큰거리왓:거리에서 빔이 쥔 크니까.
- 넛새왓:내 드리쳐나난.
- 안내왓:고장남빔.
- 피루왓:옛날 아무 것도 안 뵈서 피나 쉼출이나 허꼭 허여난 빔.
- 거리왓:질이 시커름이 앳은 빔.
- 굴왓:옴탕헌 빔.
- 뎃넙거리왓:뎃넙이 많이 셔.
- 귀(구)마구리왓:넛 어염, 우녀 빔.
- 빌래왓, 노름지왓, 께술왓, 곱배왓, 적강이왓, 뵈소왓, 만천이왓, 등들왓, 끌왓, 풍수리왓, 대왓, 막골왓, 구스래왓, 바흐리왓, 상대왓, 절왓, 동지왓

Ⅳ-4. 물

- 무룩물 : 호강이(돌 파진 거)에 빨지 안 허는 물 잊주게, 자월 속에.
- 가명물 : 날 때 안 날 때 허여. 먼저 가자 허면서 간다 허여. 경허민 오자물이 따라서 가.
- 오자물 : 비가 조금 오민 오자물이 오자 허면서 오민 가명물이 따라 온다고 허여.
- 마고물 : 막아진 디다가 나니까 마고물.
- 강생이물 : 알로 우트래 올라가는 물. 강상이물(降上이물).
- 종천이물 : 종천이 동산, 하늘이 내려왔단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허여. 종천. 그 밑에 물.
- 으무기물, 문수물, 가무나물, 조물, 쌍계수, 대명물, 문두물, 녀은물, 두응물, 구시물, 장궁이물, 논개물, 육그물, 선수물, 누르기물.

Ⅳ-5. 빌래

- 사장빌래 : 이 돌이, 빌래가 많아.
 - 녀갯빌래 : 빌래가 녀작허연 세멘헌 것 ㄱ찌 민딱허연.
 - 광이빌래 : 빌래왔인디 광이 담도 안연 밧인디 광이빌래라고 허여.
 - 그르기빌래 : 옛날 그르기(기러기) 와서 보리를 많이 먹어 낫는지 어떻게 했는지?
 - 당빌래 : 여기 옛날 당이 있으니까.
 - 강개빌래 : 강씨가 거기 주로 뭐 허어나니까.
 - 진풍원빌래 : 진풍원이 그 빌래 차지해서 뭐 허어나니까.
 - 장씨빌래 : 난리에 장생이적(賊)덜 살아나니까.
 - 쿿남빌래 : 자왈 지순 디. 쿿남만 하영 나곡 빌래 천지곡.
- 상고빌래, 누룩낭빌래, 총이빌래

Ⅳ-6. 우영

- 큰우영 : 우영으로 사용해나니까.
 - 대우리우영 : 옛날 대우리가 많이 셔난.
 - 감남앗인우영 : 감밭이 거기 있으니까 감남앗인우영.
- 몸빵우영

Ⅳ-7. 못

- 돌못 : 못에 돌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 기못 : 빌래에서 흘벗은 기()가 거기 가서 살아났다 해서.
 - 소하리못 : 물 물리는 디.
- 역그못, 빌래못

IV-8. 드르

- 진드르 : 밧이 적다는 말이주게, 질어도.
- 켓드르 : 켓가 시난.
- 막개낭드르 : 막개남 많애 나서.
- 논머릿드르, 미내기드르, 주근지드르, 소기드르

IV-9. 캐 : 질이가 질민 캐.

- 새질캐(새질) : 민 새질, 족은 새질, 옛날 새질 빼난.
- 전주캐 : 활촉 형치주게.
- 해질캐(해질), 빌래못캐

IV-10. 켓 : 돌로, 그 땅 과정, 돌로 쌓여진 것이라 켓.

- 돛박낭켓 : 켓가 막 큰 거 있어.
- 족낭켓 : 켓에다가 족나무가 있어 나니까.

IV-11. 터

- 당터 : 옛날 당 서난 디.
- 생개집터 : 사름 일름이 생개니까, 생개집터라고 현 모양이여.

IV-12. 가름

- 동카름 : 동 쪽에 시난.
- 냇가름 : 동네에 내 시난.
- 막가름 : 점악 지경이여.
- 빌랫가름 : 빌래 머 현 디 가난한 사람덜 집 쪼끔씩 지언 살안.

IV-13. 오름

- 방지오름 : 적은 오름이니까.
- 마봉오지 : 마쪽(남쪽)에 봉오리라 현 거주게.
- 켓거리오름 : 큰 켓거리, 족은 켓거리 허여.
- 밝은오름 : 붉은 오름엔 말. 붉으롱 허니까.
- 점악오름 : 큰 거자에, 큰 오름이주게.
- 망오름, 장멀오름

IV-14. 기타

- 비석거리 : 비석도 엇고, 시 일름을 지와서, 혼 밧에, 고장남밧, 안내왔, 비석거리.

濟州島部落誌(I)

- 안목 : 거리 가운데 안목지안 안목.
 - 닥밭모기 : 옛날 닥, 모시 비슷한 거 심어난 밭 잇인 그 목.
 - 옷방골목 : 우녀 쪽에 머 허연 살아나니까.
 - 섯드르 : 서쪽에 시난.
 - 도롱굴 : 민딱허연 머 엇인디 도롱굴 도롱굴 허여.
 - 당멀토 : 물 종내기.
 - 새물통 : 물 새로 허난 새물통.
 - 굴렁굴 : 서펜이 굴렁밧이란 말이지.
 - 대머들 : 막 저 들어, 담 쌓여 논 거, 머들이 하난 대머들엔.
 - 어부믈르 : 켜기 나끄는 구덕형치.
 - 켜수풀 : 상동지명. 켜수나무 덤불이 많아서.
 - 신내 : 연못 종내기.
 - 짐스내 : 믈시 먹는 물 셔난 디. 짐소내라고 허는 사름 버슬던 밧 상, 물 판 밧.
 - 만병우 : 지경.
 - 켜두둑 : 지경.
 - 뒷담매 : 오름 뒤에.
 - 점뱅이강알 : 옛날 갈중이, 이 점뱅이 모양이 뒷니까.
 - 소남밧서굴 : 큰 소남 잇어 나난.
 - 목질이 : 물.
 - 녀은왕돌 : 녀은 빌래가 잇어.
 - 장웃질 : 장웃형치라고 해서.
 - 서실개 : 구구헌디 서쪽에 굴로 가믈 개(浦)가 가깝다고 해서, 굴로 쯤썸 내려가믈 서근개라고 잇어.
 - 주답 : 옛날 울무 닳은 거, 추승이 잇어나지 않엿어.
 - 관물논 : 물이 그냥 관 모양으로 흙을 판 거.
 - 뒷논 : 이 동네에서 뒷니까.
 - 큰거리논 : 논도 엇고 물 큰착이 아주 뽳지 안허는 물 잇는디.
 - 동산믈슬개 : 동산 그 믈에 있으니까.
 - 천지소 : 학교집 아래 내려가믈.
 - 동울무기 : 켜 천지.
 - 제남답 : 제남이 하난 디난.
 - 썸산이 : 썸 들은 남이, 자월이 많애 가지고.
 - 오로꺾미 : 지다리(오로) 곱은 디.
 - 방무니옥 : 그 디 내에 당이 잇어.
 - 꺾래머새 : 옛날 꺾래돌을 잘 허여난.
 - 켜왓머리 : 켜도 엇는 디 일름이 경.
- 사장, 참새믈, 하원당, 알라매, 내룽, 섯개, 앞머새, 광대손이, 진내.

김매는 노래

1925년

김매는 노래 ①

김매는 노래 ②

김매는 노래 ③

民

민중민謡

민중민謡

민중민謡

目

次

I. 勞動謠

II. 童謠

I. 勞 動 謠

1. 김매는 노래

- | | |
|-----------|--------|
| 1-1 어어허여랑 | 사대로구나 |
| 검질짓곡 | 골눗인밭디 |
| 고분쇄로 | 여해멍매자 |
| 앞멍에랑 | 들어오라 |
| 뒷멍에랑 | 뒤로물러나라 |
| 앞은보난 | 태산이여 |
| 뒤에보난 | 먼질이러라 |
| 앞에앗인 | 저아지망 |
| 손을치고 | 눈을치난 |
| 어서가자 | 훈즈매라 |

- | | |
|------------|-------|
| 1-2 에에에에여랑 | 사대로구나 |
| 앞멍에야 | 들어나오라 |

김원춘 여. 76

홍남기 여. 63

1925년 여. 96

김원춘 여. 96

1925년 여. 96

김원춘

홍남기

홍남기

홍남기

기타

자강가 홍남기 여. 63

(김원춘, 女 · 76)

濟州島部落誌(Ⅰ)

뒷멍에야	물러나나라
굽이청청	돌아간멍에
요런놀래	요런일헛기
검질짓고	골눗인बाट
고분쇄로	여헤멍매게
여기차소리에	뒤넘어간다
어어어이허야	되야로구나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전들전들	갈뼉름불라
어어~허야	되야로구나
독은울민	날이나샌다
나사울엉	어느날새리
이여도허	이여도허랑

(홍사규, 女 · 63)

1-3	여긴너랑	서화디야
	앞멍에야	들어오랑
	뒷멍에야	나구나가라
	앞멍에엔	곤아장앓고
	흔 즈오랜	손을친다
	헛 당말면	놈이나웃나
	양긱줍앙	매친듯이
	먼데사름	듣기도좋고
	밋되사름	구경좋고
	검질짓꼭	쿨린बाट
	굽은쇄로	여헤멍매자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출동경	돌쫓아온다
	요빳검질	질긴양말라
	서근반돔	무에듯흔다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조근배에	짐하영시경
추저과탈	양새에들엉
이몸사를	걱정이라
어긴녀랑	어화디야
입쌀로랑	동전을돌앙
어긴녀랑	사대로구나
어긴녀랑	성화디야
어긴녀랑	성화디야

2. 발 밟는 노래

어어~어허랑하랑
오돌돌돌돌 돌라 돌돌
에에~ 에에랑하랑
돌고돌라돌라 어서돌돌돌고돌라
어어~ 어허랑하랑
요몰덜아 즈몰덜아
끌고루족족 나조릅에딱라오멍불르라.
어허랑하랑
버림쌀은 가는대로
요몰덜아 즈몰덜아
잘잘불랑 노픈동산만불르라
어랑하랑

(변기생, 女·76)

3. 타작노래

때리고 때리자
때리고 때리자
몰착몰착 때려보자
몰촉몰촉 때려보자

이야도홍아 이야도홍아
 요리보라 저리보라
 요리보라 저리보라
 이야도홍아 이야도홍아
 두드리고 때려보자
 때리고 때리자
 이야도홍아 이야도홍아
 요것도 때림시민
 이야도홍아 이야도홍아
 요것 저것 이야도홍아
 때리고마치자 이야도홍아

4. 방아노래

4-1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시누이는구쟁이녁시	지들각허곡
	이여도허랑	이여도허랑
	시아방은(청취불능)	죽그못 허고
	이여이여	이여도허랑
	소나이는물그럭녁시	맹기젠허곡
	이여도방에	
	시아머닌구쟁이녁시	새들각허고
	이여도허랑	이여도허랑
	이여도방에	이여도방에
	어멍신디	날가랜 허문
	앗인쑏디	물이여마는
	나도가민	시누이여
	시누이랜	너무말라
	나도가민	나어멍잇저
	기영도나	시누이랜 너무말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어멍신디	날가랜허믄
심근항에	쫄이로구나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설운어멍	날날적에
어떤날에	날나신고
눈물흘려	지는것은
옷앞섭이	젖었구나
이여이여	이여도방에
설운어멍	날날적에
무슨시간에	나를낳고
이렇게도	울렔신고
이여도	방에

4-2 이어이어	이어도 허랑
이어도	방에
은방엿귀에	아니라도
식클방에예	새글럼서라
이어이어	이어도 허랑

4-3 (청취불능)	허던방에
혹을들랑	짚어라 혼다
이어도	방에
울멍밥은	손으로 먹언
무정 허난	성아니진다
성도아니	지어라 혼다
이어도	방에
요방에야	(청취불명)
요방에예	새글럼서라
이어이어	이어가라

5. 땃돌노래

이어이어도	ㅎ랑
이어도	ㅎ랑
어멍이온들	어멍이사
날울랭	ㅎ라
이어이어도	ㅎ랑
이어도	ㅎ랑
옛말랑	말앙으네가라
득은울민	날이나샌다
내사울엥그네	어느날새리
이어도 ㅎ랑	이어도 ㅎ랑

(김원춘, 女 · 76)

6. 베틀노래

용상우의다	베클걸어
베클우의다	앗인서눔
우리나라	용상터신서눔이요
허리안개	떠운것은
우리나라의	각떠떠우신서눔이요
조릿박이	가멍오멍 ㅎ는것은
우리나라의	싸움싸움 ㅎ려 ㅎ고
가멍오멍서	ㅎ는서눔
(칭취불눔)	올락느력 ㅎ는것은
우리나라	싸움싸움 ㅎ려 ㅎ고
진을치어	서신시눔
뒷조창	가멍오멍 ㅎ는것은
견우성과직녀성이	ㅎ룻밤을상봉 ㅎ려고
가멍오멍	쩍신가마를 ㅎ신서
별가잇는것은	황구렁이청구렁이소금에

누신서농이요

베클은뭉체받아 누리치는것은

하늘옥황의 편개치는서농이요

두루머리우는것은 웨그러기짜을잃엉

우는서농이요

(변기생, 女·76)

Ⅱ. 童 謠

1. 遊戲謠

1-1 고무줄놀이 하며

ㄱ) 인절미가 시집을 갈적에는 콩가루와 흰가루로 화장을 하고
빨간 쟁반 위에 앉아 있다가 들어갑니다, 입속으로.

ㄴ) 빨간 동그라미 하나가 절을 숭상하는 신사에
그것을 보고 있던 순이엄마가 방다닥을 두드리며 울었대.

ㄷ) 오른다니 아들딸 새 정신 기르자
모여라 모여라 북제주군 사이다.

ㄹ) 할루구 할아버지 우알루
할루꾸 할아버지 우알루
백만편만 좋다고 가달춤만 추지요.

ㅁ)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이땅에도 또다시 새봄이 온다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콩나물 맛이나 보세

ㅂ) 순이어머니 연못가에서 애기를 나서
우알룰라 우알룰라 종이 가져와

1-2 공놀이 하며

ㄱ) 그레이레 일만일생 일도 없고
일도일도 일도만이 고단이 사려
시노자노 시노자노 고려하세

ㄴ) 어찌 일도라 일망일도세 명월국민학생 일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이랑이도세 명월국민학생 이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삼망삼도세 명월국민학생 삼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사망사도세 명월국민학생 사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오망오도세 명월국민학생 오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육망육도세 명월국민학생 육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칠망칠도세 명월국민학생 칠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팔망팔도세 명월국민학생 팔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구랑구도세 명월국민학생 구망가노라 잘가라.
어찌 일도라 십망십도세 명월국민학생 십망가노라 잘가라.

ㄷ) 흐르는 강물 높이 솟은 피꼬리
하나만 낚아도 사만 오십전
반찬 반찬 밥반찬
우리식구 밥반찬

ㄹ) 할미꽃 망아지 고개 숙이고
오늘도 내일같이 생각합니다
고개너머 시집간 막내딸아기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궁금하대요.

ㄱ) 아가야 어서 일어나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가야지 왕크.

ㄴ) 하나짜리요 하나짜리요 하나주고 샀냐고 자랑 말거라 짬뽕.

ㄷ)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싸부 싸부 으싸부 얼마나 아팠을까요.

싸부 싸부 으싸부 얼마나 울었을까요.

싸부 싸부 으싸부 천구백 팔십사오년.

1-3 줄넘기 하며

ㄱ)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입니다.

손님이면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ㄴ)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손뼉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경례를 하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1-4 손놀이 하며

ㄱ) 코스모스에 코스모스에 코스모스잔디에

세수하고요 세수하고요 세수하고 난 뒤에

머리 빗고요 머리 빗고요 머리 빗고 난 뒤에

쉐타 입고요 쉐타 입고요 쉐타 입고 난 뒤에

바지 입고요 바지 입고요 바지 입고 난 뒤에

양말 신고요 양말 신고요 양말 신고 난 뒤에

택시 불러와 택시 불러와 어머니 아버지 합.

1-5 기타동요(심심할 때)

ㄱ) 서당꽃 아저씨 절 살려 주셔요

엄마 아빠 모시고 절 살려 주셔요

ㄴ) 미루나무 꼭대기에 춘향이 뽕스가 걸려 있네
이도령이 올라가서 냄새 맡고 기절했대요

ㄷ) 좁고 좁은 변소간에 똥파리가 세마리
한 마리는 망을 보고 두 마리는 데이트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똥파리
망을 보던 똥파리는 서러워서 살겠나

ㄹ) 돌하르방 푸더전 임멍이 밀어먹언
어멍안티 옥들어지난 집에서 나가부런
어멍도 기분나쁜 아방도 기분나쁜
말썹사 알아보니 제주도 사투리였네

ㅁ) 햇벌은 쟁쟁 대머리는 반짝
반짝반짝 대머리에 참기름을 발라놓고
똥파리가 지나가다 미끄러 자빠졌네

ㅂ) 송아지 콧망에에 파리 열마리
웅기종기 모여서 콧딱지 뜯어먹네

강경임(여·13), 주춘의(여·13), 홍성순(여·11)

2. 자장가

2-1	왕이자랑	왕이자랑
	은저동아	훈저자라
	옥저동아	훈저자라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우리아긴자는소리	놈의아긴고추먹엉	우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툇밥툇물	먹어그네	
자는소리	호는구나	노는소리 호는구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긴	어지나네	
자는소리	놈의아긴	
끓어부난	아니자는소리구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할망아기	자는소리	
어진아기	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죽자라	재와주건	
일허여사	사느네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긴	툇밥툇물	
먹어그네	자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죽자라	흔죽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홍사규, 女 · 63)

2-2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금죽동아	자랑허자
	옥죽동아	자랑허자
	왕이자랑	왕이자랑
	유화방상	화목둥이
	동네방상	화목둥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濟州島部落誌(Ⅰ)

왕이자랑	왕이자랑
명월진은	대자랑
차귀진은	매역자랑
애월진은	술자랑
선진즈물켄	ㄹ망배령 잘합더라
우리나라	충신둥이
유화방상	화목둥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지역

부1, 51

說 話

目 次

- | | |
|-------------------------|-------------------|
| 1. 소목스와 더럭 양가자 | 3. 최문장 |
| 2. 호랑이 눈썹과 은혜감
은 호랑이 | 4. 해인사의 유래 |
| | 5. 남자 칠세에 여자 돌아보다 |

1. 소목스와 더럭 양가자

소목스란 양반이, 이것도 전설이지마는, 더럭, 더럭 양씨처장이 육지 말장
살 갔더니, 소목스가 어린, 요새말로 고등혹생 정도 해서 춤 그 양가자보고,
“이 물 풀겠소?”

“머 그러쥬. 풀레 온 거니 풀지요.”

“아무 도로미물은 내가 사겠소. 물 식 바리만 몰아 오시오.”

물 식 바리 가져 가니깐,

“돈은 요 집의 시방 조금 이시믄 댈겠는디, 거 돈은 좀 이시라.”

물 식 바린 그 놈이 뻔 도망간 풀아먹어 부렸어. 아 이 양반 물 식 바리만 잃
어 두고 왔지. 게 훔 수 옷이 그런 머 요새말로 꺾렁패 만나서, 물 식 바리만
잃어 두고 왔는디, 그 소목스가 일시 그걸 이용을 하지마는 절대 이걸 공은 가
프겠다 혼 생각을 가져. 제주목을 보레 오라지니깐 딱 오면서,

“더럭 양 아무가이 잇느냐?”

호니,

“있습니다.”

“그 자 좀 오도록 하라.”

이젠 이 양아무가이도 홀연히 거 소령 뉘서 인제 그 신임 제주목이 도헌면
서, 도임하 자말자,

“아, 거 당신을 오라고 하니까 가 보라.”

고.

하 무슨 일로 날 관에서 오라 허문 무슨 죄나 졌는가 해서 떨리면서 어느 전
이라 아이 잘 수 업고, 완 가서,

“예. 양 아무가이 왔습니다.”

“아, 가차이 좀 오고 보라. 너 이러저러해서 육지 몰장사 아이 가났느냐?”

“예. 가 왔습니다.”

“몰 식 바리 잃은 일 었느냐?”

“예, 잃었습니다.”

“그 몰은 내가 갖다 풀아 먹었다.”

일시 이용을 헛는데, 아마 그 상제의 몸이 뉘 양해서,

“너, 아무 날은 내가 통순력이라고 제주도, 이 동으로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아무 날은 대동하여라. 몰 식 바리 먹은 깎에 내가 산이나 혼 자리 봐 준다.”
어디 조천 우의 와서 그 냥반 흙피 이 문서에 딱 보고 있으니깐, 처음 들어
오라서 이 산을 돌아보지도 않고, 조천 어느 거리에 무슨 거 잇다고 뻔히 문서
상으로 아니까, 그디 간 떡 앉아서,

“여기나 헤 봐라.”

게 양가자 앉아둬서,

“거리도 멀고 어떻게 벨로 좋아베지도……. 여기 안 허겠읍니다.”

“으, 게멘 그거 좋지.”

어디 서귀 간,

“여기나 헤 봐라.”

“여기도 막음에 웃습니다.”

“그러면 무간 아니지.”

해서, 쪽 오면서 그 노픈 오름 바지니,

“저건 무슨 오름이냐?”

지리서에 다 잇는 거니까.

뭇이나 이렇게 묻다서 이 너븐판이라고. 이 왕이내, 고소치, 돛박이 오름이란 오름이 잇는디, 왕이내는 왕산이고 고소치엔 현 건 고솔리오름. 뚝 고소리 형인데, 돛박이란 것은 이디 우리 말론 돛박이 돛박이 허지마는 임금허고 성현 허고 앉아서 술 마시는 형인디. 그디 물을 딱 부리니까,

“그 어째 물을 부립니까?”

“노픈 양반인디 물 타 갈 수가 없느냐?”

고.

저기 뚝 앉아둬서로 양가자보고, 이 세미서라고, 이 네 봉오리가 이렇게 과 짝훈 디가 잇는디,

“너 그디나 가 보라.”

하니,

간 반.

“아 여긴 흐겟수다.”

“호, 거 물 식 바리 됐으니 우리가 흘 삼십여 바리 이상 짹을 물어 줄라고 하니, 여기도 말다 저디도 말다 뚝 물 식 바리만 받을라고 흐민 흘 수 엇지.”

“건 어쩐 말씀입니까?”

“거 내가 처음 곶아신 디 헤시민 게도 즈손도 번창허고 제산도 좋고, 그 모든 과거도 흐고. 춤 그만 허든 물 설라든 바리 이상 까치가 잇는디, 너가 말다 헤여. 그보단 좀 떨어지지마는 서귀도 그만 좋은 디도 말다 흐여. 즈손은 번식 흐겟고, 즈손은 하지마는 옛말로 선비는 나긴 나지마는 과거도 웃고 그자 만날 그게 그거라.”

“겨민 처음 ㄱ리친 디... .”

“건 못 흐는 법이다.”

땅을 솟다 헛어.

솟다 헛어 처음, 건 못헛 법이다. 흘 수 없쥬. 그러니 이 사름이 집을 소위 귀신이 나쁘다 흐는 게 반영이 뉘부렀다 흐는 거라. 그러니 이 집의 살면서 이 집이 나쁘다 멀 헛다. 그 집의 살지 말든 말지, 거 머 나쁘다고 흘 바엔 나가 어디 다니다 그런 말을 흐지 말고, 들을랴도 이런 사람을 말라 흐는 거라, 옛 할으방덜이.

(오술생, 남·75)

2. 호랑이 눈썹과 은혜 갚은 호랑이

호 사람이 가정에 각시가 객객객객해서, 원 출 귀칠 안허여. 아, 뜻이 맞질 못해서, 인제 아무디나 가서 죽어 분다고.

아 산에 가서 이렇게 아주 호랭이 만났지. 아 물어먹질 안허여.

“아, 너 이 호랭이 나를 물어먹으라고. 나는 여기, 왜 물어먹질 안허냐?”

“아, 우린 사람을 물어먹진 않헌다.”

“거 어째 그러냐?”

“우리 눈에는 짐승을 먹지, 당신은 사람이니까 우린 물어먹지 안헌다.”

“그러냐?”

“에, 왜 당신은 그렇게 죽기를 좋아하느냐?”

“아, 가정에 살아나갈라 하니, 원 시끄럽고. 살고프질 안여 내 죽을려고 혼다.”

“아, 그래서?”

이젠 그 눈썹 하날 빼여 주면서,

“아 이걸 들고 보면은 사람이든 만날 거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인연을 만나고 살아 보라.”

물어먹진 않여고 범이 눈썹 하나를 인제 들고 왔어.

아 집의 오고 보니깐 새끼 둘은 암탁이 새끼덜 거느려. 객객하게 이렇게. 줍 혼 번 보고 두 번 볼 침이 웃어. 이젠, 에라 못씨겠다고. 이젠 각시라 가노라 오노라 허도 않고 그자 죽기 몸 혼자 그냥 떠나서, 그자 어디 가서 가속을 장만해 보겠다고. 이렇게 어디도 잇다 저디도 잇다 하니, 이 가속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렇게 보민 개도 돼고 소도 돼고 머 쥐도 돼고. 이런데, 그리저리 호다 보니깐, 가속 인간 백일 사람을 어떻게 구하긴 구하느디, 사람이 하나 있어. 게니 그 사람 완 하니 잘 살았답니다.

또 혼 번은 거 어디 지나가더니, 아이 난디웃은 호랭이가 그냥 질을 막아서 가질 못허게 해. 아, 이리 가자니 또. 아 물어먹진 않고, 앵앵 허멍 가진 못허게 질만 막아. 등만 이렇게 허며 타라 허는 식이라. 원 도망갈라 헛자 호랭이 안티 잡혀서 도망도 못 가고. 등만 이렇게 타라 허는 식으로 하니깐, 게도 죽

어도 할 수 없다고. 빌어먹을, 이 현인이 타라고 혼 것에 탄다고.

호랭인 타니깐 지꺼져서 땡 허게 솔뵈름소리가 나게 심산으로 툄는디, 이 호랭인 어떻 헛는고 하니깐, 한 산에 그 아주 범산, 범떼족이 뱃 대 내려온 대대로 막 번식이 뛴는 산인디, 이런 당초에 범산으로 우리 보통사람이 다녀볼 수가 웃는 산인디, 제일 늙은 범이 잇는디, 나와가치 니빨이 다 빠져 불고, 이젠 먹을 수가 웃는디, 그 어디 짐생을 물어서 먹다가 목거리에 팡이 걸어져 왔어. 걸어전 하니,

“아, 이디 팡 걸어져서 난 죽겠다.”

이 범즈손덜이 앓아서, 하 저걸 끌어낼 순 웃고, 범에 서로 의논을 허뛴,

“아, 인간의 사람이 오랐으면 저걸 집어낼 수가 잇는디, 어찌리오?”

“아, 그러냐?”

“그 누구를?”

“아, 우리 가 가문 사람은 다 도망만 가 불고. 여하튼.가서 지금 그렇다면 사람을 잡아 오겠다고 말야.”

아, 전 나온 그 범이 그와가치.

아 타니깐 지꺼전 뛰어난. 툄 부리고 보니 전부 범떼족 잇는 범산.

하, 보니 원침 이게 형편이 아니여. 혼디 아주 늙은 범은 에[입 벌리며 시늉]. 초상이 아쟈어. 혼디 이 사람을 혼내여서 머 혼디,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허면서 그 늙은 범이 잇는디,아 저걸 끌어내 달라고 허는 식으로 이제 우리 모로기 수작 모양으로.

‘거 웬일인고. 이렇게 테와다 놓고 이걸 가져다 이렇게 잡고.’

아, 이젠 이 늙은 범은 아구리만 영. 아 이렇게 보니깐 이 목거리에 팡이 딱 ㄱ로 걸어졌어. 아 이젠 사람도,

‘에 하하 이렇구나. 저디 팡을 걸어지니 저거를 끌어내 달라 혼 거로구나’ 이젠 머리가 통허여. 아 그러냐고 해서 침 옷 벗어 두고 풀뚝 빼질이서 출러가니, 하, 테여 온다고 범들이. 그냥 동작 뽀르게 확 찢러 확 빼내.

하 침, 이젠 범떼족덜도 침 고맙다고 허고, 그 늙은 범도 당신안티 살아진다고 해서 막 고마운 은혜를 갚고자 허는, 춤 고맙다고 말여 이렇게. 게니 범덜은 자 이 냥반 어디 가는 디를 막아서 이렇게 해서 늙은 범이 팡 끌어지고.

현디 집으로 잘 모사다 드려야 뛴는디, 어디로? 춤 범이지마는 이 냥반이

어느 집 산다는 건 이 범들이 경 해도 아는 거야. 하니, 훈 범이 이 냥반을 내가 모셔다 두고 온다고. 하니 그 범을 갈 때는 그렇게 뛰어가지마는, 그 급한 일도 아니고 하니 느직느직 해서 오는데, 하, 사름이 많이 모인 백만장 가운데로 오라가니까,

“아, 범이 온다. 아 저 냥반 범을 타고 오는데.”

하, 참 벨일이라고.

이 사름은 범이 그렇게 해 주니깐 이젠 고인으로 해서 죽기는 안정하다 훈 건 알았어. 그래서 집으로 오라진 것도 알고. 모든 사람덜이 우러러 보니까, 으 그렇다고. 나는 범을 타고 다닌다고. 겐 집의 오니깐 고이 부려서 내리더니 이젠 ‘춤 고맙습니다’ 해 두고 범은 가니까 이젠 이었어.

그 지방 사름덜이 당신은 범을 타고 다닌다니, 위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허는데, 좀 지식 잇는, 산의 체약이나 하는 지식 잇는 양반덜토 오라서,

“여보, 당신은 그리지 말고 내력을 들어. 그러니 범과 서로 인연이 뉘 모양이니까, 범산에는 무서와서 약이란 건 일절 케여 보지 못헌 아주 귀중한 약이 많이 있다. 그러니 당신 그디 가 약을 케여 오민 살게 될 거라.”

고 아 생각허니 건 그렇다고.

“이 내가 그런 팡 걸어진 걸 앓아 준 뫏으로, 내 그 산의 갓자 범메죽덜이 날은 물어먹진 안헐 건 그건 죽신 잇노라.”

고.

“준말 말고 가서 그 약을 케여 오라.”

“아 게멘 그렇지 머.”

훈들은 이젠 마다리 들러 가지고 기굴 갖고, 그 산에 간 약을 케옌더니 어떤 범새끼 녀석이 보니깐,

“아, 당신, 초상을 살려 준 사름이 그디 가 뫏을 이렇게 험서?”

하 보니,

이 범새끼가 지네 메죽안티,

“저디 그 우리 초상을 살려 준 양반이 오랏다.”

고.

“오, 그러냐.”

고. 오고 보니깐 이렇게 약을 케염서. 아 저건 우리 사름덜이 약으로 케여 갈라고 혼 거라고. 저디 그런 약이 없느냐고. 그 범떼죽들은 덩기면서 어디 풀나는 건 알지. 아무디 그게 막 많이 잇다 하니, 아 그러면 저 양반 그리 쫓어가.

아, 약 케는 양반은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헤 노니깐, 머 벨로 전의도 그렇게 해서 막잡진 안허고. 허니 어디 갔더니, 보니 순 맨 약초. 순식간에 그놈을 혼 짐을 걸머 약을 케게 어. 케어 노니깐 또 이 범은 공을 가꾼다고. 그래서 걸어매 올라고 하니까, 타라고 말야. 테와다 드린다고.

이젠 약을 혼 짐 걸머매고 그 범을 타고, 사름 많이 모인 디로 또 지나오는디, 아 저 양반 전의도 범을 타고 오더니 오늘도 그렇다고.

“나는 범을 타고 다니는디, 당신네는 못 가지마는, 나는 범 친구가 돼니깐 범산에 가서 무슨 약 무슨 약 이렇게 전입으로 내가 케고 온다.”

고. 아, 좋은 약을 케고 온다니, 보약 케고 온다니, 돈 잇는 사름덜은 그 약 좀 풀아 달라고. [조사자: 잘 살았맨 허는 얘기네예. 게난 그 범도 은혜를 가파싱게 예.] 아, 그렇쥬. 아무리 짐생이라도.

(오술생, 남·75)

3. 최문장

그 아버지 군수로 갓는디, 군수로 간 날 밤의 꼭 군수 각시를 뵈이 차 가 버리는디, 그 최문장 모친을 그렇게 차 가 부련 헐 때에 최문장 부친이 결국은 그 고을에 가서 상당히 그…….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창산이보고 춤실한 멩주썰, 그 멩주썰을 얼마큼 가져 들이라고 해서, 도로기가 혼디 이 홀목에 꿰매고 그 가속이 일 걸, 때를, 시간을 기드리더니, 춤 아닌게 아니라 밤이 기퍼 가더니 광풍이 뵙 헐더니 각시는 도망가 부리고 실도리기만 풀어지는디, 가다서 거저 풀어질락말락 헐더니 그 실도로기는 중단 돼가지고 허니깐, 인젠 날 썰 때를 기드려서. 거저 날이 새 가니 근거를 찾아 가고 보니깐 이런 층암절벽에 그 실이 들어가 노니, 하 이거 방황하니까 그 혼 방자가 잇다가, “산문은 밤의 연다 했으니, 방황헤 본덜 어덯니까? 집의 가서 음식 자시고 어두운 때를 기드려서 움이 어덯니까?”

하니, 아 머 그럴 일이라고 하니까, 춤 아닌게 아니라 밤 돼가고 보니 문이 열려졌는디, 관속덜은,

“저 우의 밀림지역에 가만이 은신하고 이시민 죽던 살던 내 홀로 가서, 이젠 딴 지역이니까 내 자 보고 오겠노라.”

고

해서. 가고 보니깐 딴 세상인디, 그 최문장 모친의 무릅을 비고 큰 돼야지가 그냥 떡 걸러져서. 헌디, 널 잡으라 하니 널 잡는다고 헌디, 이젠 하썰 머 하돼 그자 윗 할으방덜 하는 말이주. 가고 보니 무릅에 머리를 비고 뵈 하니깐, 부인은 어쩔 수 웃이 짐생안티 잡혀 오라 하지마는, 이놈의 원수는 갇고자 해도 가플 수가 웃고. 참 이만저만헌 짐생이 아닌디, 돼야지 남펜이 돼서 물어간 홀수 웃고 해서 하니, 그 짐생보고 하는 말이,

“하, 당신은 세상에 만고의 영웅입니다.”

“으, 그렇지 뭐. 난 불도 무섭지 않고 물도 무섭지 안고, 나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고 하니.

게난 이 짐생도 딱 때가 났 짐생이라. 허니 하여튼 이 최문장 모친은,

“거 그러냐? 세상에 하나 귀훈 거 없는 법은 없다고. 뭐이든지 꼭 하나는 서로 귀훈 것은 잇는 거이 원칙이라.”

고 하니,

이놈의 돼야지는,

“으, 그래. 나도 하나이 귀훈 거 잇지. 녹피가죽물이나 녹피가죽이나 해서, 녹피가죽물을 귀구녀테레 넣든지 녹피가죽물을 귀구녀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나는 다 났 것이라고. 그외에는 물이고 불이고, 나에게는 원 칼이고 머이고 하나토 걱정기탄이 없다.”

고 하니,

아, 거 그러냐고. 문득 최문장 모친은 씨부모님네안티 재산 전부를 받을 때 췌대 끈을 녹피가죽, 췌대끈이다 한 말을 언뜻 들은 바가 있어서. 에서라 못씨 겠다고. 췌대끈을 입에 막 머홀어서 춤을 한 박 귀구녀에 쏟아 댔더니 그냥 께도 못허고 그냥 그만 자부려. 허니 거저 다 보니 이 짐생은 죽어 부러터.

아 이젠 짐생도 산 땐 서로 여러가지 말도 하고 헛주마는, 죽어노니 이젠 딴

세상인 줄 알면서, 가련한 날ㄴ튼 팔자가 어디 잇느냐고. 인간을 어디라고 좇아오쟁 호민 좇아올 수도 못 돼고. 이 짐생 원수는 죽였지마는 나갈 질이 어디 잇느냐고.

이렇게 호면서 막 자탄가를 부르는디, 최문장 부친은 아이치 아이해서, 거밤원 문을 연 걸 보아서 고요히 몸을 은신허고 들어가고 보니깐, 침 짐생호고 수작호다서 아이치 아이라 춤 그 부인은 돼야지 발을 탕탕 차면서, 아 이놈의 돼야지 원수는 가팠지마는 자 나갈 질이 어디 잇느냐고 호며 박 자탄을 부르짖으니깐, 최문장 부친은 가만히 은신헤 있다가, 아 돼야지가 죽은 것 ㄴ트긴 ㄴ트지마는 아마케나 나가 온 신호나 좀 흔다고.

인간이 서로 야영을 살 때에, 어떻게 기분이 좋지 못호민 그 사약을 조금 이렇게 해서 향기를 마타서 서로 멀 헤난 일이 잇는디, 에 사약춤치 차고 갔다서, 에 사양향이나 좀 피와 본다고. 사양춤치를 꺼내서 좀 이렇게 호니깐 공기상으로 그 사양향기가 그 부인 코에도 좀 났어. 호니 이제야 더욱 옛날 남펜과 살면서 그 향기를 마타난 일도 생각호면서, 춤 돼야지는 탕탕……. 우리 남펜이 여기 올 리는 없겠지마는, 춤 다행히 옛날은 이런 향기도 마타났건마는, 나갈 질이 어디 잇느냐고. 막 자탄을 부르짖으며 돼야질 땅땅 두드리거든.

최문장 부친은 ㄴ만이 듣고 보니깐 돼야지는 죽은 것도 ㄴ뜨고 해서, 에서라 못씨겠다. 이 춤치를 막 클러서 향기를 아주 머호게 피운다고. 사양춤치를 클러 간 막 이렇게 호니, 최문장 모친이 신태고찌 거보담도 막 향기가 콕콕 들어오는 게, 원침 이 남자 만나느냐. 모친은 아 이놈의 짐생의 원수를 가팠는디, 만약헌 남펜공이 여기 와시민 어서 나오라 주시오. 이 세상은 똥 세상인디, 어서 빨리 인간으로 나가야지, 어서 나오라 달라고. 드러 허공을 등을 삼아 축복롬에 빌듯, 이렇게 헤 보악 벨 지랄을 헤 가니깐, 최문장 부친은 ㄴ만이 은신헤 잇당 죽으민 호 번 죽지며 뵈 수 잇느냐고. 에이 빌어먹을 거, 나사 본다고.

“나가 여기 왔다.”

“아이고 이거 똥 세상이니까 빨리 갑시다.”

“거 안다고 말야. 그래 뭐냐, 구관 관원의 가족덜은 어떻게 뵈느냐?”

“저디 가두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 내노라.”

게서 그 여즈덜을모두 데리고서 나오랴는디, 이 짐생이 산 영기로 화훈 짐생 인디, 거기 가 온 후로 태기가 가져서 최문장을 난 흥니깐, 최문장 부친은 돼야지 피를 받은 걸로 봐서 돼야지 새끼로 인정해서, 최문장 나니깐 돼야지 새끼 던져 불라고. 흥디 이 최문장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산짐생이 죽은 영기로 화훈 것은 모르고 돼야지 새끼로만 알고서 던져 불라고 흥니깐, 이젠 강가에 어쩔 수 웃이 포따리에 지성기에 두루싸서 강가에 갇단, 바로 물 위에 데껴 붙순 웃고 강가에 놔 뒀다서, 거 흥를밤 자네 뒷날은 물론 밤새에 다 죽어실 테이지. 죽엇거드네 목숨 웃으니 강물데레 던져 불자고. 가고 보니 눈 베롱이 살고 있어. 흥, 이젠 즈손 땅땅 부려 가며 어쩔 수 웃이 즈손.

하하, 이렇구나고. 또 이젠 좇 맥여 두고 그놈을 쌍 나두고 흥 사흘을 그렇게 출입해 가니깐, 그 념편은 눈 부릅뜨고 내던져불라고. 허니 어디 진부덜 가지곤 그 돼야지 새끼 좇 맥이레 뎡이는지 아느냐고. 호찰이 이만저만이 아니.

“하 여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내 보기엔 사름새끼 ㅁ뜨고 흥나, 당신의 멩령대로 아무 강ㅁ의 바로 그 강물데레 던져불 순 못돼고 강ㅁ에다 완, 이날이나 죽엇는가 저날이나 죽엇는가 가고 보민, 눈 베롱이 살고 있으니 아니치 아니해서 아이 데끼지 아니허연 침 매일 두고 본다.”

고. 아 그러니 강가에 놔 두니,

“이제도 살았느냐?”고.

“아 당신 가고 보라고. 나가 거짓말 흥겠소?”

흥니, 어디냐고. 아 가고 베레싼 보니 눈 베롱이 살고 있어. 하하 이젠 츄츄 클르고 보니, 침 틀림웃는 사람의 그 뿔이라. 하하 과연 나가 잘못허여졌다. 허여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고 흥더니, 강변의 어떤 선녀가 나오더니,

“어찌 남의 자식 데려가느냐?”

고.

흥니, 최문장 부친도 인간 사름이 아닌 줄 짐작흥면서,

“그자 과연 본인이 몰라서 이렇게 실술 했으나 데려다 질러랴고 합니다.”

“거 못 데려간다고. 결국은 이 아이는 부모흥고 인연이 없는 아으라고. 아이를 이디저디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밤때에만은 추위와 늑룻이라도 우주 학의 새가 내려서 흥 노래는 꿀고 흥 노래는 더끄고 학의 품에 잠을 자니까 그렇지, 아이가 무단히 산 중 아느냐? 이 앤 그러니 데려가지 못헌

다.”

“하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강^ㄱ의 이 꼴을 보고 그대로 내부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가건막이나 하나 지어서 그 막에 넣으면 어떻느냐?”

“머 그건 무관^한다. 좋다.”

하니, 이젠 후제 막을 짓고 그디 놔둬서 좇만 그디 오란 벅이면서 성장해 가는데, 최문장 부친은 한 번은 아덜보래 가서 지팽일 들르고 간 오다 그만 지팽일 잊어 부렸어. 잊어 부렸는데, 아 다음 간 때랑 갖고 오지. 다음 놀레 간 이젠 이렇게 놀다서 올 뻔,

“야, 나 전번의 여기 왔단 지팽일 잊어 부려 갖는데 그 지팽이나 봤느냐?” 어디. (두 손을 벌리면서 길이를 나타내고는)

요맨은 현 건 물으니,

“아이 이젠 아니짜.”

“웃다. 나건 진디.”

“아 이 모살바닥에서 글을 쓰느라고 글공뵈 혼다고 몽그라서 이렇게 찢라졌 습니다.”

이 선생 웃이 베와서 그리 하자 칠세 나는 해에는 아버지보고서,

“저를 찾아오지 마십서.”

“거 어째 그러냐?”

“제가 이 지방을 떠나게 뻘수다. 떠나지마는 절대 그 아버지 아들이 뵈 것 이고, 하니 그자 이쯤만 알고서 찾아오지 말아서 그만 가십시다.”

게 가는 것이 나라의 제일 노픈 양반네 집의 들어갔어. 칠세 난 아동이니까, 거지 아이로 가서 얻어먹으레 다닌다고 헐 하니, 불쌍허니까 밥 혼 적 주니까 얻어먹고. 그자 그럭저럭 뭐 혼디, 이리저리 돌아보니깐 그 양반네 집의 제일 작은 딸이 게도 질 눈에 들고 귀인에 들언 허니, 이 작은딸이 이렇게 큰 거울 을 받아 앓고 머리를 찢찢 빚어내여. 최문장은 돌멩이 가정 거울을 딱 마치니 깐 거울은 깨지는 게 소실이지. 하 보니깐 거지새끼가 그 돌질을 장난해서 거울을 깨 부려.

“아 이 새끼, 너 밥만 먹어도 좋지, 이 거울을 깨불민 어떠느냐?”

“자 어떡니까? 지가 잘못했지마는 할 수 있습니까? 제 종신 집안의 몸을 바쳐서 그저 굴목이나 짊어 얻어 먹을테니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일름을 뒷엥 해야 될 건디, 거울을 깨부렸다고, 이 아이 일름을 파경이라. 이 아이를 부르짖 허민 ‘파경아’ 이렇게, 거울 깨 부린 사름이라고. 헤서 부르는데, 이 아이가 인간에서 배운 사름이 아니니깐, 흙피 그 대감 딸은 존재가 없어. 간혹 굴이나 이렇게, 춤 짓기 의사를 발휘한다고. 아 요 거지새 끼가 어찌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말야.

하자 중국서는 석함에 계란을 놔서 한국에 보내면서 이걸 알아 올리라. 인젠 나라에서는 이렇게 훈디, 그 대감이 노픈 대감인디, 그 나라으서 요새도 그렇지마는 그 노픈 대감안티 일룹니다. 대감이나 하지 누가 한다고.

이제 대왕은 아자서,

“이걸 알 자가 있느냐?”

흐니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훈 대신이,

“아무 대감에게 일르민 알 수가 이실겁니다.”

딱 훈 사람을 지적해 부니까 이젠 대왕은 이거 모든 제신에게 의논을 훈디, 그 대감이민다 흐니깐,

“알아 올리라.”

“아이고, 큰일이여”

아, 아무것도 알지도 못히는 양반이 이걸 몰르민 죽게 마련이라. 하이고 이젠 오면서 나는 죽었다. 그날부터 당추 음식을 먹지 않고 그자 난 죽었다고 이렇게 대감이 음식을 받지 안허니 모든 노복이나 가족덜이라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쥌.

이 파경이는 점점 때가 당하니깐 거들거려싸서 이 죽은꼴과는 서로 너네 집의 침 죽겠다 해부려. 죽으민 죽었지 알 게 뭐요.

“침 나가 너네 집의 시방ㄴ찌 굴묵하니나 헤시민 나를 그렇게 보느냐?” 고 말여.

“어쩐 말이냐?”

“나는 알지마는, 참말 알 자가 하나도 없다.”

“겐 너 알아지겠나?”

“너가 굴묵하니라 헛지만 나 모른 것이 어디 있느냐?” 고 말야. 이거 흙피 당추에 이만저만 이상헌 물건이라.

“글이여 모든 거 아는 건 보천대는 이놈이. 그런 것도 알 듯도 하긴 하지마는, 저걸 이렇게 해서 알겠노라니 머 알 수가 시랴? 너 정말이냐?”

“정말이지. 나가 거짓, 일구이언 하겠느냐?”

“그럼 어찌 너 꼴았느냐”

“너하고 부베간이엔 꼴았지.”

이 하니, 그날저날 그를 이틀 굶어 가민 온 가족이 스몹 죽을 지경인디, 형편이 아닌디 하니깐 이 지집아가,

“너가 정말 그러면 나하고 부베간을 하민 알 수 있느냐?”

“모가지 베든 그거 아니냐?”

고 말야.

일개 남아가 어디 빈발을 하겠느냐고, 그럴 듯도 하여. 이제 홀 수 웃이 아바지안티 간. 아바진 버쩍 굶어…….

“아버지, 전 홀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집의 파경이란 아이가 이리저리 보민 거지새끼 맞지만 그자 사름이 아닙니다. 그리 알겠답니다.”

“거 어찌면 그 파경이도 어찌면 알겠다 하느냐?”

“춤 말하기가 췌송합니다마는 저하고 부베간이나 헤진다고 하면 골아 주겠다 합니다.”

“씨발년 머, 츠마이 어디 강물데레 던져 불지, 거지새끼하고 인연 맺일랴 하민, 머 느 미쳤냐?”

보기 싫다고 말여.

허난 아이 먹어본 걸로, 그거 알 수도 없고, 속은 상흔 배설에 죽겠다 하더니 죽지도 못허고, 이거 속은 고프지. 또 모든 식구가 전부 다 그런 입장인디, 그 홀 수 웃이 아버지안티 욱듣고 홀로 앓았다서 또 재츠로 아바지가 음식을 먹어야 온 가족이 살고 멀 하겠는디, 춤 곤란하다고. 이 톨이 재츠로 가서,

“그 아바지가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썩니까? 저 하나 아이 난 폭 잡앙 식 설 적에 던져 분 폭 잡앙 식 설 적에 던져 분 폭 허여서, 그 구식이 만약 모른다면 모가지시겨. 야튼 중책을 떠어서 어찌 하겠읍니까? 꺾만이 고려하십서.”

춤 베는 고프고 그 톨말도 맞아, 조금 이렇게 생각하니. 무관 아니라고 말

야.

“파경이 보내라.”

아, 나오란 아버지 오라고 혼다고 가 보라. 그렇다고 거딱거딱, 갔으니깐,

“너 그러면 그건 알 수 있느냐?”

“예, 알 수 있습니다.”

“나 사위로 혼 테니까 어찌냐?”

머 웨상하겐 하연.

“엇수다. 혼인행사를 해서 그 날 밤원 제가....”

배설이 튀어나고 참 화가 나지만 화가 나 본들 혼 수가 있어?

“택일이고 뭐이고 쌀 하나이는 오늘 행스하이라.”

그날 밤의는 말해 준다고 하니깐 이제 행스해서. 밤이 됐니깐 신부방에 이젠 파경이, 거지가 턱 들어간 안으로 앉아. 춤 앞의, 책상앞의 간 턱 앉아서 그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야. 허니 물건을 춤 알아 올리라 하니, 그 대감이 그 물건은 운임을받안 하니까, 가져오라고 하니, 그 가져단 앞의 책상에 턱. 이 사람은 그자 사람이 아니니깐, 이제 그 책상 위의 놓고서 이렇게 눈썰메. 그 석함 이 혹 열어진 거 보니 뺑아리가 털을 돌아서. 돌아 가지곤 춤 멀지 아니하여서 이제 막 성장하게 됐어. 허니 여기말로, 빙아리가 아이라. 독이 머릴 들으지 못하니 울질 못한다. 이렇게 문밖으로 딱 썬 가지곤 가서,

“이것이다.”

“아 제난 이제 무엇인고?”

머 이게 이거라 하니깐, 썬 부치긴 독이 머리를 들으지 못하니 울질 못한다.

“대감,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게 그겁니다. 머 무슨....”

아 재촉 물을 수는 못되고 이젠 대감도 나라에 혼 수 옷이 파경이 말대로 올렸읍니다, 드려. 아 대왕도 영 보더니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엇인고?”

“저는 모르겠읍니다.”

“건 누가 혼 것이냐?”

“집의 이러저러 혼 파경이가 있어. 안다고 해서 파경이가 쓴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파경이 보내라.”

아 파경이는 나라의서 대왕님이 오라고 혼다고 헨 갔으나깐, 갔으니,

“에 도대초 독이 머리를 들으질 못허니 울질 못혼다니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글은 글이지마는 알아볼 재주가 없다고.

“저기서 척함에 계란을 담안 보낸디 그 새에 딱스니까 빙아리가 뵈겁니다. 빙아리가 뵈서 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이젠 이 물건을 중국서 알양 중국에 강 바껴야 뵈는디 대왕은,

“이건 누구로서 이 물건을 중국에 가져갈 것인가?”

하니, 만조백관은 모여서,

“거 아는 자가 가져 가야지 뭘 이릅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 물건을 가정. 제니 이젠 임금에선 모든 제신털이 의논헤. 그런디 그대가 아니믄 안 뵈다고 하니까 가져 가라고 하니,

“예, 가져 가겠습니다. 건디 만약 저를 보낼랴면 요구뵈는 물건을 헤 주민 가겠습니다.”

“요구뵈는 물건은 뭐냐?”

“광목 혼 불하고, 사물을 혼뵈 그 양 뽕 놀개, 서른 대잔가 뵈 진 놀개를 혼 광목에 그런 걸 헤 주민 가겠습니다.”

“그것사 어려울 게 뭐냐? 그건 곧 헤 놓겠다.”

아 이거 포따리 걸머매고서 흙피 들어갔는데, 이 중국선 정치적으로... 그 중국 큰 대문 바궈되 가서 산 그 광목은 가정 가단 그 가차운 디 가 가지고 의복 다 정리해서 한디, 문 앞원 가니깐 인제 사서 엉엉 벌작을 허여. 그러니 그 문지기는,

“그 어떤 백성들이 오라 우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난 적어도 한국, 즉 소국서 왔는디, 우리나라 서울에도 게도 판을 쓰고 다니는디, 황처대국이라 해서 오고 보니깐, 판을 벗고 가게 니깐 이런 억울이 어디 있느냐?”

하니,

“이게 흠피 문이 적어서 그(손짓하면서) 그렇게 일단 관을 벗고 들어가야 돼니 어찌 그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 운다고”

아 그러냐고. 이제 천주 대하고

“한국서 이래저래허연 오랏는디, 우는 백성이 있어 어찌 우느냐고 하니까, 사무ㄴ디 이러이렇게 혼 뵈은 게 있어서 춤 관을 벗어 들어가야 돼니, 그런 억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읊니다.”

하니,

“아 그렇지. 관이 아니 어디 벗고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성담을 헐어라.”

고 말야.

이렇게 허면서 허연 건 간 바찌니 거기선 계란을 죽기네가 논거니까 뻔히 알아서. 아 이게 굴을 쓴 거 보니까 독이 뵈었다는 말인디, 깨고 보니까 춤 빙아리가 뵈었으니깐 아 이렇다고.

전디 중국은 문장덜이 왜국선 다 그런 전디, 문장덜이 만날 모여 가지곤 해보뵈, 최문장을 눌러 보진 못허여. 그래 하다하다 버치니깐 최문장을 무슨 모략, 궤를 구성해서 죽여 불자고. 스형을 시길 정도로 맨들아 난 허니깐, 거 왜 모든 제신덜이 그래……. 천자 혼 사름으로 그 사름을 이렇게 해서 그 궤를 사악할 수 웃고. 건 할 수 웃이 그렇게 혼디, 거 그러나 천자가 절대 이 사름이에 그런 것도 아닌디, 아니지마는 모든 무리가 이거 죽여야 돼니깐 죽이진 머 할 수 웃이 건 무관 아이나, 여기서 죽이지 말아서 결국은 귀양을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천자님이 계도 많이 생각을 하고서 혼 섬의 풀도 웃고 물도 웃고, 순 거 뭐 아무것도 웃는 디 시니깐,

“거기 귀양보내면은 굶어도 죽을 거고 말라도 죽을 거니깐 사름을 그렇게 죽이고, 머 힘보단 눈으로 볼 거 웃이 그디가 봐 불민 뵈지 않는가?”

해서 제신덜이 말을 허뵈,

“거 우리가 사름에 죽이고 멀 할 것보단 아무 섬의 귀양을 보내민 어떤고?”
하니, 모든 제신덜도 ㄴ만이 생각을 허니 춤 그 섬원 아무것 엇어, 몰라도 죽을 거니까. 이제 머 좋습니다고.

그래서 귀양을 보낸 허니, 어느 전이라 어쩔 수 웃어 귀양살이 갓는디, 어떤

선녀가 나오더니 소갯뭉텅이 닳은 걸 주면서,

“요것 물이나 빨아먹으멍 그자 알아시민 살 수 있다.”

아 침 아리치 아니라, 그걸 이 입에 물어 족족 빨아. 고프도 앓고 울도 앓고 아주 침 좋은 선약이라. 그래서 좀 큰 산 웃지. 허니깐 침 그렇게 험 사는디, 혼 열 보름, 혼 일 년 가까이 돼도록 그만허면은 죽지 안연디, 이래서 천재가 춤 보내 버린 뒤 둘 수는 없어서, 아 이젠 사름을 보내서 그 알아 보는 게 어떤고. 물론 몰라서 죽어실 거라고, 하니 아 좋수다고. 게 사름을 보낸 간 보니 까 머리 이렇게 ㄱ만이 앉아서.

“거 어째 왔나”

“예, 천자쪽에서 그자 모든 안부를 알아보도록 해서 보낸 왔읍니다.”

“으, 나 살긴 아주 그전보단 더 좋다.”

보니 춤 그전보단 더 얼굴도 좋고. 아주 좋은디, 가서 아주 펜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깐 그쯤 가서 아토투라고 올리라고. 이젠 돌아와서 그 스실대름,

“아 간 보난 아주 얼굴도 좋아졌고, 아주 머 이레십디다.”

아 이젠 그자 보통인간 사름이 아니라고, 아 이런 사름을 무단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 사름을 돌려오는 게 어떤고 하니, 이젠 모든 제신 덜도 어찌할 수 없거든. 이젠 그 청자를 모시래 가는디, 가 가니까 이젠 선원 들보고,

“너 그리 말고 우리 말대름 허면 돈을 후히 준다. 어쩔 것이난”

“그 배 두 척을 허웨, 혼 척으랑 최문장만 태와서 끌고 오다가 그 밑바닥을 궁길 터주아서, 이 낭줄을 이렇게 오다 그 줄로 이레 쑥 동겨 불민 물침이 터져서 물이 들민 굴라 앓일 테니까, 그리해서 물 들어서 인제 죽을 테니까 그래서 죽여 두고 오라. 에 그러면 돈을 후히 준다.”

이래서 인젠 춤 아리치 아니해서 뱃놈덜은 그렇게 허연 간. 아 그자 가시니까,

“어째 왔냐”

“그자 나라에서 천자께서 모셔 오도록 험 왔읍니다.”

“으, 그래요 으 그러면 가지 머.”

허니, 그 최문장 혼자만 독선 태완 오는디,

“거 어째 나는 혼자 독선을 테우느냐”

“소인덜이 노퍽 양반님과 혼 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응, 것도 그렇지.”

아, 그래서 그 한강 바다에 가니깐 이놈덜이 그건 그처럼 험 물더레 거 벨
굴라 앓게 허연. 그 그놈덜 눈에, 뱃사람 눈에는 춤 배가 굴라 앓는 것까지 헛
주마는, 난디 웃인 고랜 잇다가 그 배가 침몰헤 죽겠으니 그 최문장을. 그놈덜
은 이젠 돈벌이 헤졌다고 그자 날레날레 오라지난, 고랜 썩 허니깐 곧 황성을
도착헤 가지곤 허니, 물에 오라지니깐 이젠 천재께 오란 뵈인다.

“아 거 선원덜은 어디 가…… 그자 점쳐 올 겁니다.”

머 최문장은 오란 디, 이 배놈덜은 오지 않여니 그 중국 춤 문학과덜은 이제
아이 이거 어떤 일이냐고. 허연 아주 오래 춤 얼마큼 서사 이제 춤 시간 내어
서 그 뱃놈덜이 왔으니,

“아, 최문장 기저허는데, 느네들이 어떻게 헤 두고 이거 너네 이제”

“우린 바다에서 온전히 처리헤서 바다에……. 하이고 게멘 강 우린 무엇인
고”

그랬는디, 그디 귀양살이 가기 전의 천재 우의,

“중국서 제일 누가 부잡니까”

“아무가 부자라고 한다.”

“거 부자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새에 불썬 당신이 귀양살이도 가질 걸 알고 에 부자칩원 불썬 불을 놔서
이 중국서 돈을 물지 말라고, 이제 나쁜 것덜이 춤 불을 질러 불 걸 알아서,
그 부자칩의 겨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부자를 불러서,

“아 이 양반이 그 당신네 집을 보고자 하니까 자 뵈와 드리라.”

하니,

“예.”

이제 부자양반하고 하니 오라는, 하니 뭐 춤 아니헤서 사채자는 술잔이나 뭐
적어도 헤서 춤 아니치 아니헤서 요새 물터진 브롬에 어떤 동조를 이제 귀야진
가 큰가 이제 뭐 축 부찌더니 코로 머 물이 줄줄. 건 술통인디, 그 술 헤 놓
고, 안주는 무슨 배령이얌은 머. 이상헌 걸 안주 뵈어. 하니 춤 부잔 부잔디,
인젠,

“술은 어떤 술이며 안주는 무엇이라?”

하니,

“술은 이래저래해서 춤 고급술이고 안주는 계수나무 잣이다.”

춤 세상 귀훈 부잣양반이라, 아 그러냐고. 게 부자 근거를 좀 베와 주민 좋겠다고, 아 이제 창고문을 축 열더니 그 누계안티 돈 얼마 주고 저 은행 서류 모양으로 그 서류만 제각헌 창고라. 아, 이걸 보고 부자라 합니다. 허나 이 양반은 그자 축축축축 흥명 그자 영……. 아 이걸 보고 부자라 허는구나. 다 보고서 돌아왔는디, 마춤 귀양을 간 오라서 불썸 그 집은 화재 나서 불카 분 걸 알았지.

“그 부잣양반이 근래에 어떻게 펜안합니까?”

“어, 말도 말라. 화재 나서 그 창고니 머니 다 불부터 부니까, 머 원 누계신디 머 돈 훈 푼 달라, 살젠 헛자 살 수가 없다.”

“그러나 그망썸 헌 부자는 머 그 종이때기에 글 쓰민 뵈건디 그게 무슨 그 어려울 게 머입니까?”

고. 아, 그러니,

“돈 지출부 문제 다끄믄 뵈 거뿐이지 거 무슨 어려울 게 뭐 잇느냐?”

“아 그러니 그대가 어떻게 그걸 참고 할 수가 잇느냐?”

“저 훈 번 이렇게 봤으니깐 머, 그 정도는 쓸 수도 있습니다.”

하니, 그 부자낭군 부르라고. 아 이 양반이 그 그대 안부를 물어서 흥기에 화재 나서 이만저만 형편이 아니라고 하니, 아 원대복굴 시켜 준다고 하니깐 머 알아 두라고. 아 그럼니까고.

“아 거 어떻게 훈 번 이렇게 본 걸…?”

“아 내가 훈 번 본 건 쓸 수 있지.”

어느 맛을 누계 머머머, 하나 틀리는 게 웃이 척척, 이 이 저놈 살려 나가민 머 빗 아이 물어도 뵈겠는디, 머 큰일났다고. 그러나 머 이렇고 저렇고 여러가지가 정말 춤 최문장은 그자 사름이 아니니까. 건 뵈야지 산 영기로 화헌, 뵈야지 영기로 화헌 사름이고.

(오술생, 남·75)

4. 해인사의 유래

이 나라에 이 저 협천소, 협천소 [조사자: 협천사?] 협천소, 절간, [협천사.] 예. 협천사가 어떤 협천사냐? 아, 해인소, [합천 해인사] 예, 합천 해인소, 그것이 그 용궁의 해인을 왕씨때에 그 대들보에 뇌난 해인소라고 하는데, 그런 이것도 전설입니다. 혼디 그 해인은 어느 때에 나왔느냐?

용왕의 용자가 삼 년 동안 그 췌악을 받아서 인간의 왕대감전의 그 인간이 나오라서 왕씨조상 왕대감때에 결국은 조반식사를 받아 앗아시민 우리 보기에 개로 화해 가지고 풀리 한들한들하면서 밥을 혼 적 달라는 식으로. 인제 이렇게 혼니까, 참 속 뵈말로 개랑 묻저 주자고, 그에 풀리치면서 뭐 달라는 거 모양으로 이러니깐 아이 줄 수가 엇어 갖고 밥을 혼 술 떠 주면 먹고 고맙습니다, 뭐 혼 달음에 어디 가 불고. 아, 이놈의 개가 어디 잇당 꼭 밥상 받으민 이 개가 와. 게 삼 년을 항시 밥 한 술씩 떠 췌는데, 하루는 어떤 동족가 뵈고,

“그저 대감님 덕택으로 삼 년 동안 그자 무사히 살아서 저는 고향으로 가게 뵈읍니다.”

“음 자넨 누구고? 나 보기가 처음인데.”

“저는 과연 서해 용궁 용존데, 제가 대감님 보기에 개로 뵈서 매일매일 매식 받아앓은 때 그 밥 한 술 얻어먹은 개가 접니다.”

“음, 그래요, 용존은 이제 용이라면, 즉 말하면 그 거인과 ㄹ든 형용을 혼겠는디, 개도 뵈고 춤 동족도 뵈고 아 거 인간이 아닌 물론 그럴 테지. 허나 거 춤 오늘 듣기가 처음이다. 뭐 은혜명 말명 어서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용왕대왕님전에 간 췌를 다 사악하고 갔으니,

“아이 너는 어떻게 죽었는가보다고 하더니 어찌 삼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서 너가 이렇게 돌아오니깐 참 보기에 반갑다. 어찌 살았냐?”

“저 왕대감전에 식사 받아 앓아 가민 그자 밥 한 술씩을 떠 췌 그걸 먹고 살고 오랏읍니다.”

“그러면 남의 밥만 먹으면 뵈겠냐? 거 공을 가파야 뵈지.”

“예, 그러나 저는 공 가플 도리가 없어서 그자 인사만 하고 왔읍니다.”

“아, 안된다. 곧 그 왕대감 데려오라.”

“예. 그러면 인간에 와서 왕대감 청해 오겠습니다.”

“음, 그래. 청해 와.”

허니 이젠 인간에 또 나왔어. 또 동주가 돼서 인젠 왕대감전의 뱀이다.

“아, 자네는 요전에 고향으로 간다더니 또 어찌 봐지는가?”

“음, 예.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전의 돌아갔더니, 어떻게 삼 년 동안 살았느냐고 흥기에 대감님의 식사 받아왔은 덕 밥 혼 술책을 얻어먹고서 살고 왔다고 흥니까 아버지가 곧 대감님을 모셔오라고 공을 가파야지 남의 음식을 공히(공짜로) 먹으면 돼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대감님 모실라고 왔습니다.”

“거 용왕이라니 용궁은 물 속, 이 식사가 아닌디 아 그런 지역에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흥고만 가면은 뭐 아무 지장 것이 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까?”

하다가, 가만히 앉고 생각을 흥니깐 적어도 노픈 제단이, 용왕에서 오라고 흥는디 이거 아이 갈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이젠 어쩔 수 웃어.

“무간 아니지. 그러면 ㄹ찌 가 보지.”

그래서 용주가 가면서,

“저 대감님이 아버지신디 가시면 그 공을 가쁘다고 은이나 금이나 뭐냐 공가프젠 막 이럴 건니다고 흥뒹 전부 사양하십서. 그리 흥다서, 아버지 앞의 연적이 있습니다. 연적이 있으니까, 젤 취후랑 정 그렇다면 연적이나 하나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돼겠습니다. 그리흥고 저 강가에 가면 제가 뱀새끼가 뵈 겁니다. 제가 끌리치면서 가면 저의 밑으로만 오면은 하등의 모든 지장이 없이 무사히 가질 겁니다.”

“아, 그런가?”

이래 참 아닌게 아니라 동주흥고 ㄹ찌 가다가 강가에 가니깐 어떤 뱀새끼가 돼서 흔들흔들헐다 말야. 아 이젠 들은 말에 비추어서 물에서 이렇게 허니깐 그 뱀새끼 밑으로 가다 보니까 춤 이 세상 고대광실 노픈 집에 단상에 떡 앉고 참 어른 ㄹ트고 말야, 춤 어전이라. 세상 모르계 참 노픈 자리 가트여. 지냥으로 노픈 어른이신 줄 알고 지냥으로 머릴 꾸겨지고 머,

“웁니다.”

하니,

“아, 왕대감이 오셨구나. '어서 올라오시오.'”

그래서 마른 자리에 초청해 앉았,

“거 들으니 불초자식이 춤 퀘를 짓고 대감님 덕택으로 그저 삼 년 동안 무스히 살고 오랐다고 해서 허기에 곧 가서 초청해 춤 모셔오시도록히 그레 보냈는디, 참 반갑습니다.”

헨 그자 혼 메칠 사는 것처럼 하는 데, 아 이견 인간(인간세상)이 아니니 빨리 고향에 가야 뉘겠는디, 이제 인간은 아니다. 혼 걸 왕대감은 생각을 하고서, 뭐 이력저력 대위받는 것처럼 하고.

“대감님, 뭐허지만 이런 정도로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고향으로 가실라요? 것도 그러지요.”

그런디 공을 가파야 뉘는디 아 은인가 금인가 막 이러는 거라. 아이 뭐 공 대자 할 게 있습니까고. 제발 그런 말씀 말아 주십스고, 아 그럴 수 없다고. 꼭 그 공을 받아야지, 어디 그럴 수 잇는가고. 막 사양하다서 그 용즈의 지시에 비추아서, 앞의 보니 자그만한 곱닥헌 연적이 하나 있어.

“정 그러면 저 연적이나 하나 주십서.”

아, 이것도 흙부로 멋을……. 용왕이 마만이 흥영 말데답을 못 하여. 하니, 그 용즈가 잇단,

“아, 은이나 금이나 하다서 연적도 하나 드리지 못헤게? 드려 붙주게.”

“거 무간 아니지.”

그것이 해인 해인(海印) 헌 것이 용왕의 어인(御印)이라. [조사자: 아, 도장!] 에, 도장, 뉘말로 저 나라의 어인 옥 사라고. 그래서 얼른 내 줄 수가 없어서, 에 거 드려 붙주 뭐.

“거 무간 아니지, 어서 갖고 가라.”

이젠 그 용즈가 대감을 모시고 오면서,

“이건 아주 귀중한 보옥이니까 잘 보호허십서.”

그런디 그 후손에다 송도 왕씨가 그 왕대감의 후손인데, 그때까지 그 보옥을 위존받아서 해인스 대들보에 낳다서 이태조 이성계안티 쫓겨나서 뉘 홀 뉘 그 때 비결이 잇엇는디, 만인을 죽이라 한 비결이 잇엇어. 허나 쓸데없는 사람 만

인만 죽여 부돼 인제 쫓겨나서 이젠 춤 할 수 옷이 춤 났게 뒀니깐 아 그러면 이 보옥이나 보자고.

그 해인스 대들보에 춤 보니까 아 그게 도망가고 웃어. 그 중을 전부 조사하고 보니까 정 만인(鄭萬人) 도사 하나이 도망가고 웃어. [조사자: 정 만인?] 정 만인[조사자: 정 만인 도사] 예. 성은 정간디 일름이 만인이라 하는 그 중인데, 노끈 중, 정 만인 도스 혼 분이 간 곳이 없으니깐 그 겨 하니, 정 만인이가 이 보옥을 갖고 도망을 갔다. 만인을 잡으라니 정 만인을 잡아시면은 그 옥을 보 전호겠지마는 그 춤 왕씨에도 걸 가져도 보전 못 할 거고 이 성계, 이태조안티 오라도 에 그 옥을 보할 못 할 거니깐 그 정 만인 도스는 그만한 신인이라 후 대스를 알기 때문에 이걸 갖고 도망을 가서 행방불명이라.

행방불명인데, 금번에 윗날 그 비결문에 '모악산두에 금불이능언(母惡山頭, 金佛能言)', 모악산 머리에 금부체가 능히 말을 하니, '천관산변의 금인이봉옥(天冠山邊, 琴人奉玉)'이라. 천관산又되 금째는 거문고 금째(字), 임금 왕 둘 아래 이제 금 혼 재(字), 금인이, 금인이라고 혼 건 거문고又치 그 말을 정물없게(?) 하는 그 금인이란 성현이라. 금인이 그 옥을 받으면은 백수군왕하고 흑조고성이라고, 벽순에 임금에 오르고 꺾은 아들이 그 웨로운 성에 든다고. 게 난 소위 그것만은 그 정씨가 임금위(位)에 오를 때 그렇게 될 건디, 에 그 성현 될 사람이 모악산 머리에 금부체가 능히 말을 하니깐, 어디 그 옥이 잇다고. 우리나라에 그 옥이라고 헤서는 그런 거, 그거 귀중혼 보옥인데, 모악산두에 금불이능언하니, 모악산 머리에 금부체가 능히 말을 하니, 천관산변의 금인이 봉옥이라. 천관산又되 그 거문고 금인이, 그 금인이 말을 들어 가지곤 그 옥을 받으면은 백수군왕하고 흰 백조, 손 수재. 벽순에 임금위에 오르고, 흑조고성이라고, 꺾은 아들이 웨로운 성에 든다.

꺾은 아덜, 임금의 꺾은 아덜, 글도 모르고 멍텅구리여, 멍텅구리를 임금위에 그 성현이 나서 올려 준다 이거여, 그렇게 그랬어, [조사자: 백수, 백수 뭐엔 헛수과? 그 한문성구를 뭐엔 헛수과? 백수, 흰머리에.....] 아, 모악산두에, 에미 모조, 에 악할 악재, 모산 머리에 금불, 금부체가 능언하니, 능히 말을 하니 천관산변의, 하늘 천째이관, 천관신又되 [조사자: 명의?] 천관시변 [조사자: 아, 변의!] 변의, 금인이, 금인이란 건 거문고 금째, 그 금인이 봉옥해야, 그 옥을 받으면은 그 모악산 머리에 금부체가 어디 잇다고 하니깐 뭐 나도 그런 꼴아

주면 가져올 수 있거든. 에 그 성현이 그 옥을 받으면은 마 정씨가 백순에 임금위에 오르고, 멩텅구리 아들 꺾은 아덜이 인제 웨로운 성에 뜰어간다. [조사자:왕이 뭘 수 있다?] 아, 뭘 수 있다. [조사자:그 지금 해인사엔 헨 이름이 부튼 것이 제연 그후룩 그 옥새 가정 완 담안 와 두니까 해인사엔 허엇구나?] 아, 그렇지.

그랬다가 그 이태조 등극 이래엔 정 만인 도소가 갖고 도망을 갔어. 도망가는 건 정 만인도 도소 자격이 잇고, 춤 아주 신인이니까 이 나라에 그 옥을 보호 못 할 거라고 해서 이걸 안고 도망을 간 행방불명인데, 금번에 그 '모악산 두에 금불이능언, 천관산변의 금인이 봉옥', 옥을 받는다 한 것은 그런 보옥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여. 꼭 그 해인사에 잇는 해인 그 보옥이라고 쓴 것 읍어.

[조사자:그, 절 아니팝?] 에? 아 건 절인디, 왕씨가 그 절간을 아주 국가에 큰 신사로 해서 그 절을 믿고 그 대들보에다 해인을 춤 보호헨 와 뒀다서 에 위급허니깐 그 열고 보니 셔야 뵈지. [조사자:그렇지] 정 만인이가 그만 갖고 도망을 갔다 이거여. [조사자:게멘 언젠가는 거 발견뵈믄은 왕이 날로고나?] 아, 그렇지. [조사자:어디사 곱전 와 뵈신디 모르지만.] 아니, 그리도 허고, 그 왕이 날라고 허면은, 에 [조사자:잊어 버린 듯 길게 뜸을 들이고] 허고 그것은 보민 거 웨 그런고 허면, 글이 딱 있으니까 이 글을 믿어서 곱을 좇아볼라고 허거든 비친 사름이, 정신이상이 뵈어. 곱을 좇을 수가 읍어. 머 딱 그 논설이 있으니까. [조사자:어디 곱졌는지 모른다.] 아니, 그게.아니고 윗날 정감록인데 이걸 꼭 믿어서 근거를 찾아 보지 말라. 이걸 적극 믿다는 좇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 이상만 뵈부리고, 에 화를 멘치 못한다. 딱 그레 밝혀 부러터.

오술생, 남·75

5. 남자 칠세에 여자 돌아보다

아이가 뭐 자파리(장난)만 허멍 뭐 일도 안 허고 어머니말도 잘 안 들어서 뭘 허니까 그 어머니가 헨 말이,

“야, 이놈아, 남자 칠세에 남의 지집 돌아본다는데 너는 항상 그런 자파리만 하고 뭘 헐 거냐?”

“그리민 나도 돌아보민 돼지 뭐.”

이놈이 어떻게 허는고 허니깐 올래 멀지 않은 되 이웃 아주 노푼 양반, 짐서방(김서방)인데, 칠세에 놈의 지집 돌아본다고, 그런데 너는 아니 험다고.

“나도 돌아보민 돼주.”

허니깐 짐서방인데, 아 이놈의 아이새끼가 어디 가 그 아주 침 대감 뭐 말젼 딸인가 무슨 춤 어여쁜 딸인디, 이렇게 앓안 침재질(바느질)을 허는디, 빙빙 자꾸 돌아다녀. [조사자: 집주위를?] 아, 게난 앓안 험디, 어떡어떡 자꾸 돌아다니니 귀찮거든 말여. 칠세 난 놈이 그치질 안허니까,

“네 이놈으 새끼, 너 뭐 허냐? 놀아도 앓앙 ㄱ만 놀던지……”.

아 이러니깐,

“우리 어머니 말이 남자 칠세에 놈의 지집 돌아본다 허드라.”

“그러니 너 어머니말 듣고 겨니 날 돌아보는 거냐?”

“오냐, 그렇다.”

[조사자: 그걸로 끝이팜?] 아니, 글로 시작이주. [조사자: 험서.] 이 여즈가 인제 가만서,

“하 칠세 난 놈이 어머니가 그렛다고 나를 돌아본다니 참 기가 막히다.”
허나 그자 이렇게 저렇게……. 사름이 후에 복이 있음직 햏여. 보통이 아니라. 다 그 맞음짝이 돼니까 그러 거지.

“너, 그러니 어머니말 듣고 나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냐?”

“물론 그렇다.”

“너 만약 그렇다면은 쥐가죽 천 장에 새가죽 천 장을 헤 오면은 날 돌아볼 수 있지.”

“오냐. 그럼 그러지.”

이젠 그놈이 각시 돌아보지도 않고 쥐가죽 천 장과 새가죽 천 장을 햏민 이 각실 돌아볼 수 있다니, 아 이걸 햏다고, 이젠 눈이 벌정케 그자 이렇고 저렇고 쥐가죽이니 새가죽이니 하면서 침 쥐가죽 천 장 새가죽 천 장이 이천 장을 헤. 냐어. 이젠,

“어느 거냐?”

“헤 왔다.”

뭐, 그러니까 이젠 돌아볼 수 있을게 스실이주.

“오냐, 그래, 잘 알았다. 그럼 두고 가.”

이 여자가 그 어떤고 하니, 쥐가죽 저고리와 새가죽 바지, 새가죽으론 알옷을 맨들아. 맨들아 가지고 이웃밑이니깐 흥시 놀레도 오긴 오는데, 그 쥐가죽은 옷옷을 맨들고 새가죽은 알옷을 맨들어서 그냥 옷을 지어 났어. 옷을 다 지어지니까 그 애이보고,

“너 이 옷 가지고 산에 가서 십년 공부 하고 오라고 말여. 그러면 내 방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젠 장래 아매도 뭇이 될 사름덜이라.

“뭐 그렇다면 그렇지. 나 이 옷 갖고 가겠다.”

그 쥐가죽 저고리에 새가죽 바지가 뭐 설러(챙겨서) 저 가지고 인젠 죽기 어머니신디 가서,

“저, 아무 대감똥이 산에 가서 십년 공부 해 오면 방에 올 수 있다 하니깐 나 산에 십년 공부 가겠소.”

그 어찌 헤여? 산에서 십년 공부..... 마춤(마침) 10년이 거저(거의) 가차울까 말까 혼 도상에 다 운이 그런 거지.

그 임금대왕이 각시가 죽어 버렸어. 죽으니, 상실허니까 이젠 물론 가속을 정홀라고, 모든 제신들 모여서 참 내 가속을 죽어 불고 후처 가속을 제초(再次)로 인제 그 적어도 대왕이니깐 처녀를 골라서, 어 좋은 왕후로 존격이 잇는 사름을 골라서 해야 뉘겠는데.....

“거 뭐 대왕님 막음입니다. 어떻게 허민 좋겠습니까?”

“글쎄, 게도 좀 여러 제신 노퍽 지휘관이 어느 계급 이상의 집의 처녀를 골라 보라고 말여. 처녀 멧이나 잇는가?”

아 이젠 하니까 그걸 조사한 결과,

“이러저러해서 아무 집안에도 처녀 잇고 아무 집안에도 처녀 잇고 처녀 총계는 몇 명이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성들을 전부 오도록 해서 혼 번 식스나 해서 음식이나 먹는 거 보고 잘 골라 볼 테니까, 어찌냐?”

“그 대왕님 뜻이 그러니 옳은 말씀입니다. 뭐, 그리 험지요.”

전부 국비니깐 말이여. 좋은 쌀에 좋은 반찬 국거리를 해 가지고 그 처녀들을 소집을 하뉘 대왕은 상실을 했으니깐 바로 왕비, 임금의 부인으로 인제 홀

결로 딱 선포해 가지고 그 처녀들을 다 오도록 하니, 이 처녀들은 미혼전이니깐 남편은 서론 내용적으로 하돼 결국은 처녀라고들 아이갈 수 없거든. 적어도 임금의 명령인데 어디 죽으면 죽었지, 처녀라고 해서 올려면 오라고 하니... .. 그렇지마는 나는 본래 서로 언약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고는 못 하고, 제나 제나 가면은 옷도 아명케나 입었 가고 음식이라도 아주 추접하게(더럽게) 먹고 이렇게 하자고, 옷도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가니깐 이렇게 바래기 발 벗은 앓아 단 음식을 주니깐 아구리가치 이제 우락우락 담는 거엔 밀락밀락허멍 짐짓 눈에 들지 말게. 아 대왕은 이러지리 돌아댕이단 보니 이렇게 앓아 먹는 상이 참 음식도 잘 먹고 상당히 보기 좋 상시켜, 그게 제일 귀인이 되겠다 하여. 이제,

“저 처녀가 내 뜻에 있다.”

그러면 이젠 대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거든. 하 이제 내가 약속한 내 내편이 있는데 어쩌지 못하고 슬픈 임금의 각시도 하고 싶진 않연디, 아 이 슬픈 나를 이제 임금의 각시로 하면 그냥 그날부터는 꿀 상으리고 죽겠다고 하면서 음식도 잘 안 먹고 꿀을 상으려서 마 죽은 꿀..... 아, 임금님은 새 각시, 새로운 그 처녀를 위해서 하건 어떻게 해서 맛음을 붉으게 해 주는데, 꿀 상으리게 아이구 뭐 이렇고 저렇고. 적어도 이 죽기 몸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여성이지마는 남편하고 언약이 있는데 그 대왕이라고 벨나다고 몸을 풀민 될 거여? 어떻게 방비할라 하니 그런 거지.

하니 하 임금님은 어떻게 해서 새각시가 한 번 말하자면 저..... 참 모든 원이 없어. 아 어떻게..... 벨 수단을 하돼 옷도 얹여고 꿀 막 세우고막 죽겠다고만 하는 관이여, 자 이놈의 병은 췌병이라 백약이 무화라 말여, 무슨 약 해 봐도 약도 못....

아 이제 임금이 하다하다 버치니깐,

“어찌 하면은 부인에게 반가운 길이 있을까요?”

“나 부디 반가운 일은 몸이 이렇게 돼서 반가운 일은 없는데..... 아 그리해도 석 달 열흘 백일 잔치나 햄시민 좋겠다. 거 반가운 일이 이실거 같다.” 백일 잔치는 그러면 남편 보고 싶다는 뜻이여.

“백일 잔치나 햄시민 혹 반가운 일이 이실 거 아닌가?”

“뭐, 그야 어렵지 않지. 국비로 하느디.”

이젠 곧 각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석 달 열흘 백일 거지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나라에 이렇게 막 거지는 다 드러났어. 석 달 열흘 백일을 거저 막 돼가도록 이렇게 보태 주기 성주님은 못 본다 이거여, 거제(거의) 마지막 날이 돼뭇(되어) 아 쥐가죽 저고리에 새가죽, 짹짹 파르릉 짹짹 파르릉 하면서 참동으로 뛰역 서로 뛰역 하면서……. 보니, 주기 남편이라. 그 정든님을 볼 때 그뻘 춤 반갑고 하거든, 아 그냥이 이 명으로 하하. 세상 꼴 갖이게 웃지 않아는 부인이 그레 웃으니깐,

“부인은 뭇을 보고 웃으는가?”

“아, 저절 보라고 말야. 저기 짹짹 파르릉 하니 오직 반가우냐?”
고 말야. 자기 남편이니 그 주기가 반가운 거지 대왕은 반가운 거 모를 거 아니라. 겨니 이젠 멍청구리 이 대왕은.각시를 더 즐겁게 해 보자고, 잘 좀 오라고 해서,

“그리 말고 나 웃하고 그대 웃하고 좀 바꿔 도라.”

고. 아 임금은 제라흔 춤 그 관복, 모든 관복을 하고 그 쥐가죽 새가죽 그걸 바꿔 달라고 하니, 아 그거 그리 흡니다고. 나는 그러나저러나 대왕의 맹령이니가. 바꾸어 주니, 아 이젠 임금도 얼마나 각시 즐겁게 하느라고 짹짹 파르릉 영 하니, 이뻐 그렇게 나갈 땐 나라의 옥사만은 그 가솔이라고 부인안티……. 이뻐 그 새로운 친구도 임금 관복영 다 입으니 내 모양이 어떠냐고. 옥사 받고 용상에 타라고. 오, 그렇지. 임재 부른 용상이라고 탁 치니 한 용상귀가 부러졌다고.

“그 어떻게 기분이 어째요. 좋지요?”

이젠 뭐 이렇고 저렇고 물론 아무리 충신이어 무싱거 하지마는 옥사(옥쇄) 가진 사름이 임금직이여., 하고 임금의 관복 의관 전부 헛 말이야. 경혜 놓고 용상을 탁 칠랴 하면서 잡인금지하라 하니 임금도 이젠 거지가 돼거든. 편편이라. 각시도 잃고 그냥 옥사도 잃고 뭐 거지가 돼버렸지 뭐. [조사자: 경 혜으네 그 거지는 왕 돼었다는 이야기, 그 걸로 끝나는 거구나, 예?]. 그렇지.

(오술생, 남·75)

信 仰

目 次

- | | |
|-----------|----------|
| I. 概觀 | IV. 部落信仰 |
| II. 個人信仰 | V. 巫俗信仰 |
| III. 公認宗教 | |

I. 概 觀

明月里는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翰林邑에서 남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自然部落이며 행정상 上·中·下洞으로 區分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인 문수동, 한천동, 남문동, 진근동으로 구분한다.

옛날에는 明月鎭의 중심 마을로서 크게 번창했었다. 그러나 1949년 4·3사건으로 폭도들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 마을 신앙은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난 미신타파가 성행하여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행해지고 있는 民間信仰은 公認宗教와 習合되어서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佛教 외에는 공인종교가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

II. 個人信仰

1. 土神祭

① 名稱：土神祭

② 祭神：土地之神인데 祭를 지낼 때는 「土地之神之位」라는 紙榜을 사용한 다.

③ 祭日：陰曆 正月初에 식구 모두가 不淨하지 않은 날을 擇日하여 祭를 지 낸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고 家族의 福德을 祈願하기에 맞는 날이면 언제라도 祭를 행할 수 있다.

④ 祭官：學識과 德望이 있는 사람이 祝文을 써서 三日 또는 七日 精誠으로 心身을 淨하게 하고 儀式에 맞는 祭服을 입어야 한다.

⑤ 祭壇：年初에 家庭의 安寧을 祈願하는 경우에는 뒤결의 깨끗한 곳에 정성 스럽게 祭壇을 마련한다. 葬禮 때는 埋葬 전에 墓의 좌쪽, 평평한 곳에서 祭를 행한다.

⑥ 祭物：메는 四器를 올려 왔는데 他 地方과 마찬가지로 쌀메 二器와 좁쌀메 二器로 한다. 그런데 스님을 빌려서, 지낼 때는 메를 三器로 한다. 메는 그릇에 쌀과 물을 알맞게 넣고 솥에 얹혀 증기로 찜는다. 떡도 메와 같은 방법으 로 하여 쌀떡과 좁쌀떡을 올린다.

그 외에 魚類·海產物·고사리·野菜무침 등을 祭物로 하였었다. 犧牲으로 는 돼지머리·수탉·평 등을, 幣帛으로는 베나 명주를 올렸는데, 옛날에는 각 각 한 필씩했고 오늘날은 각각 三자로 줄었다.

⑦ 禁忌：三日 또는 七日 精誠으로 祭日이 결정되면 三日, 七日 전에 집의 윗대방에 새끼줄을 매어 不淨한 자의 出入을 禁한다. 금줄은 祭日때 獻官이 들 어오면서 풀어 버린다.

⑧ 祭文

土神祭祝文(1)

洋乎在上 質之在傍 有禱必應 無惑不通 太歲在壬 吉日唯丁 民困年既 誰與爲神 伏願尊靈 宜佑日新 轉凶爲吉 反咎爲休 寒鬼毒疾 一并掃除 唯神所在 民無疵癘 兵火不入 日月光輝 日露集境 風雨若時 田無蝗虫 畝除藏螟 野林同人 年登大有 百穀用成 千倉乃求 角者蠶者 是何多斃 房驪呈彩 牽牛除精 呵嚙妖魔 使日生生 我食我衣 是誰之久 揔賴神賜 格斯亨斯 報賽無涯 謹以魚幣醴齋粢盛尊獻 庶品式 陳 祇薦于神 尚饗

土神祭祝文 (2)

土地之神 伏以 天地之大 德田生生 奚去奚處 于今數齡 時不利耶 夢不利耶 云
胡伊來 吉小凶多 方位東方 新造小屋 仲子得病 經過年月 巫祝無效 針藥難救 乃
卜乃筮 崇在此吉 日吉辰良 點禱謹告 伏願明神 侍垂冥佑 霧中見日 旱中得雨 福
宿相應 壽星重添 永世安堵 樂我太平 門神戶鬼 亦其相助 更加康寧 保之佑之 一
室安全 報賽無窮.

⑨ 目的 : 新年에 지내는 土神祭를 家內的 安寧과 無災殃을 祈願하는 祭라 한다면, 葬禮 때는 土神에게 葬禮를 알리고 屍身의 保護와 家族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해 祭를 지내는 것이다.

⑩ 特徵 : 新年의 土神祭의 경우 옛날에는 祭官이 따로 있어 행했지만, 요즘은 절에서 스님을 모시고 과거보다는 간결하게 지낸다.

2. 七星祭

明月里에서는 점성술의 일종으로서 북두칠성에 빌어 편안을 기원하는 七星祭가 행해졌었다. 土神祭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날을 地官에게 물어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전에는 祭官을 빌어서 지냈지만 현재는 스님을 祭官으로 하여 절에서 지낸다. 지금은 佛敎와 民間信仰의 혼합식으로 잔존하고 있지만 거의 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3. 맹감

한 집안의 1년간의 無事太平을 산신에게 빌어 기원하는 산신제이다. 정초 또는 3月・7월에 택일하고 무당을 빌어 행했었지만 없어진 지가 오래 됐다.

4. 조왕제

가정의 부엌신에게 가족의 안녕을 빌기 위해 正月이나 三月에 부엌에서 행한다. 보통 土神祭가 끝난후에 지내는 것이 관례이다.

5. 고사

옛날 이 마을에 어떤 종이 살았었다. 그는 마을의 소를 맡아서 동네 오름에

서 돌보는 일을 했다. 그 목동이 소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목동의 충명함을 기리고, 소가 번식하고 병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월달에 날을 택하여 외양간에서 행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Ⅲ. 公認宗教

·明月里에는 佛教 외에 별다른 公認宗教가 없다. 佛教라 할지라도 대부분 民間信仰과 混合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현재 세 곳에 寺刹이 있고, 또 하나의 寺刹이 新築되고 있는 중이다.

1. 黃龍寺

① 名稱：大韓佛教 太古宗 黃龍寺

② 沿革 및 現況：이 寺刹은 現在 明月山城의 邊境에 자리잡고 있다. 대구에서 금운스님이 들어와 한림읍(면) 상대리에 절을 지어 廣龍寺라 했었다. 4·3 사건 때 疎開돼서 現在의 위치에다 그 당시 신도들의 협조로 절을 새로 짓고 黃龍寺라 하였다.

③ 寺刹施設：寺刹內에는 법당과 사채가 자리하고 법당에는 부처와 보살상 그리고 배면에는 탕화와 스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사찰 주위에는 맑은 물이 흐른다.

④ 運營：이 寺刹은 信徒會가 構成되어 모든 運營, 管理를 그들의 決定에 따라 행하고 있다. 寺刹의 運營은 祭日 불공, 곧 사월 초파일·七月七夕·成道日·觀音祭日·涅槃日·正月 등에 바치는 施主와 죽은 사람의 極樂往生을 祈願하는 데 바치는 佛事로 꾸러가고 있다.

信徒會는 대략 300호 정도가 되는데 明月里뿐만 아니라 한림, 제주 등지에서도 찾는다고 한다.

⑤ 其他：信徒들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은 보통이며, 신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순박한 사람들이다. 이 寺刹의 스님은 2명인데 그 중 한 명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2. 金剛寺

- ① 名稱：大韓佛教 太古宗 金剛寺
- ② 沿革：46년 전에 이세진당 스님이 創寺하여, 그 후로 두어 차례 주지승이 바뀌었다고 한다
- ③ 施設：대지 921평, 법당 1채와 객실 2채, 칠성당으로 이뤄졌다.
부처님과 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뒷면에는 탕화가 걸려 있다.
- ④ 運營：信徒는 400호 정도인데 3:1로 女信徒가 많은 편이다. 스님은 법종 스님과 그를 보조하는 보살 1명과 공명스님 1명이 있다.
- ⑤ 其他：이 寺刹의 行事와 運營은 거의 황룡사와 類似하다.

2. 靈覺寺

- ① 名稱：大韓佛教 法華宗 靈覺寺
- ② 沿革：40년전 濟州市에 처음 寺仕을 지었다가 해원생 도신스님이 16년이 지난 후에 명월국민학교 근방으로 자리를 변경하였다.
- ③ 施設：대지 54평에 18평 짜리 대웅전, 여사채가 자리잡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상과 탕화가 걸려 있다.
- ④ 기타：스님(도신)의 자택이 절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며, 전에 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절을 찾아 巫俗的인 性格을 나타낸다.
스님은 출장시에만 승복을 입고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다른 寺刹과 조금 다르다.
그외 寺刹의 운영과 관리는 다른 寺刹의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IV. 部落信仰

- ① 祭名：醺祭, 또는 마을제라 한다.
- ② 祭神：天神之靈, 地神之靈
- ③ 祭日：6月 첫 丁日 子時에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丁일에 不淨한 일이 생기면 亥일에 지냈다고 한다.
- ④ 祭壇：下洞에 있는 속칭 <왕대왓>에 있었는데 15년전 쯤부터 마을제를 지내지 않게 되자 지금은 흔적도 없는 상태다.

- ⑤ 祭儀管理 : 마을 鄉長이 鄉會를 소집하여 祭官을 뽑았다. 鄉會 소집은 소사(하인)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鄉會日時를 알렸다. 향회일시는 그때 그때 달랐지만, 대개 약 2주일 앞뒤서 소집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費用은 하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서숙으로 받았다. 서숙은 대개 보리로 모두 1되씩을 받았으나 성의가 있는 이는 白米 1되를 내었다. 모든 물자구입은 典祀官이 하고 경과보고를 하였다.
- ⑥ 祭官 : 祭官은 鄉會에서 마을의 유지급으로 선출하였다. 그 數는 12명으로 初獻·亞獻·終獻 等 三獻官을 비롯하여 執禮·大祝·贊者·謁者·奉香·奉爐·司樽·奠酌·典祀官이다.
- ⑦ 祭物 : 메는 쌀로 지은 밥 한 그릇과 좁쌀로 지은 메 한 그릇을 합하여 두 그릇을 올렸다. 시루떡도 마찬가지로 흰시루떡과 한 시루, 조시루떡 한 시루를 올렸다. 채소는 미나리, 무우 등을 올렸고, 각종 과일, 돼지머리, 생감자, 비늘이 있는 바닷고기를 올렸다. 그리고 폐백은 베 1절, 백지, 창호지 3~4권(1권 : 20장)을 올렸다.
- ⑧ 祭服 : 도포를 입고 유건이나 관을 썼다. 소제관은 유건을 쓰고 三獻官은 청금을 입고 관을 썼다.
- ⑨ 齋戒 : 3박4일 동안 합숙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4박5일 또는 일주일까지도 한 경우가 있었다. 합숙기간 동안 목욕재계하고 祭場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드렸다.
- ⑩ 祝文 : 특정한 양식은 없고 해마다 그 해 마을 사정에 맞는 祝文을 지어서 사용했다.

醕祭祝文

維歲次某年某日 獻官某 敢昭告于醕祭之神 洋洋在上 質之在傍 有禱必應 無敢不通 歲在乙巳 吉日維丁 里在明月 部落三洞 一心團體 敢竭微誠 災去祥來 全鄉民平 雨順風調 五穀豐登 官災不侵 口舌除防 況且六畜 民產爲重 各隨其性 滋滋繁盛 萬事如意 敢望神德 唯靈之神 微獻景福 格斯亨斯 報賽無斁 謹以粢盛 庶品式陳 祇薦于神 尚饗

- ⑪ 行祭 :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행해졌다. 그리고 그 순서는 奠幣禮·初獻禮·讀祝·亞獻禮·終獻禮·撤邊豆·望燎位の

순이었다.

- ⑫ 禁忌 : 祭 지내기 전에 금줄을 매어걸어 시루떡이 잘 안되면 나쁘다고 한다.
- ⑬ 飲福 : 祭를 끝낸 뒤 향사로 돌아와 돼지를 잡고 飲福을 한다. 분배를 할 때는 初獻官이 가장 많고 아래로 갈수록 양이 차차 적어진다.
- ⑭ 소멸이유 : 한림, 옹포, 금능 등 이웃 마을에서 없어지기 시작하자 그 영향을 받아 약 15년전 쯤에 폐지했다. (제보자 : 강군하, 남·75세)

V. 巫俗信仰

1. 어느 집단이 동일한 堂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길 때 그 집단을 하나의 동일 신앙집단 또는 동일신앙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신앙권이 하나의 행정상의 단위 마을(里)별로 그 구역이 서로 일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堂神 특히 本郷神이 여러 신앙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이리하여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일부락이지만 신앙권은 여럿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바로 이 동명리(東明里) 및 明月里의 신앙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濟州 神堂들의 직능별 개념 설정

제주 堂神들에 대한 직능별 또는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이미 玄容駿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지만 (제주 「巫神의 형성」과 「부락제당」 그리고 「제주도민속자료 사전」 참조) 이 보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本郷神

동일신앙권 내의 토지와 주민의 제반 사상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신을 '본향신'이라 하고 그 신을 모신 당을 '본향당'이라 한다. 본향신은 동일신앙권 내의 토지, 산수, 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부락민의 호적, 출산, 사망, 생업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 통념되고 있다. 토지, 산수 등 자연의 주인이라 함은 그 경내의 토지의 임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본향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토지관'이라 부른다.

이 본향신을 두고 신앙권역의 토지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앙권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生業守護神

수렵, 농업, 어업, 축산 등 신앙민들의 생업을 수호 관장하는 신으로 이르는 신앙권 내 신앙민들의 생업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렵을 관장하는 狩獵神은 '산신' '산신대왕' '산신백관'이라 이름으로 불리는데 산신의 주직능은 산에 있는 동물의 수렵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산신계통의 이름을 가진 당신은 주로 산간 내지 중산간마을들에 많다. 이것은 그 신앙민들의 그 옛날의 생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수렵이 거의 사라지고 신의 성격도 수렵의 수호라는 측면이 전혀 없어져 버렸거나 혹은 약간의 잔영만 남기고 있을 뿐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민간수호신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農神의 이름을 '세경' 또는 '천황제석'이라고 하는데, 간혹 신앙민들로부터 신앙되는 경우들이 보인다.

漁業神은 '海神'이라는 이름 외에 '개당하르방' '개당할망' '개할망' '용녀부인' '용왕'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계통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일일이 그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이 모두 해안부락에서만 모셔지고 있다.

3)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

주로 어린이들의 산육과 치병의 직능을 갖고 있는 신으로 이 신에게 빌면 허물, 옴 등 피부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 신앙민의 통념이다. 매월 7, 17, 27일 그리고, 8, 18, 28일을 제일로 삼은 당이 일반적으로 흔하다. 그래서 인지 '일렛당(7일당) 또는 '으드렛당'(8일당)이라 하는가 하면, 또는 그 직능에 따라 '허울할망당'이라 하기도 한다. 대개 그 신격은 여신인 게 일반적이다.

3. 여러 신앙권 내에서의 신들의 역할분화와 신앙형태

明月里·東明里의 개황과 신앙권의 나뉘

이 두 마을은 행정구역상 한림읍 내륙에 위치한 마을들로 여러 개의 자연 취락들이 1~2km의 간격으로 띄엄띄엄 흩어져 단일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행

정구역상으로는 서로 갈려 동쪽은 동명리, 서쪽은 명월리라 한다.

이 두 마을은 이웃 마을들인 上大里, 今岳里, 上明里 등과 함께 내륙에 위치한 마을들이면서도 완사면 지역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락입지를 결정하는 제일요건인 음료수 사정이 어느 정도 좋은 편이어서 일찌기 농, 목축업에 의존한 자급적 경제생활로 삶의 터전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명월리는 내륙에서부터 해변 쪽으로 上洞(케수풀)－中洞－下洞(남동네)으로 불리는 자연취락들이 묶여 하나의 행정 단위를 이룬다. 이들 자연취락들 중 하동은 왜구방어성(명월성)으로 둘러 쌓였던 자연취락이라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과거 이들 자연취락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구전에 의한 설촌사에 따르면, 명월성 내에는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 탐라 고씨가 거주하였다 하며 다음 진주강씨가 입주하였다 한다(김영돈, 지정보존에 따른 지정대상 촌락개요 및 보존방안 pp. 32-33)

현재 명월리 상동에는 主姓인 高氏(30여호)와 각성반이들(30여호)까지 합해서 약 60여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중동은 주성인 吳氏를 비롯하여 120여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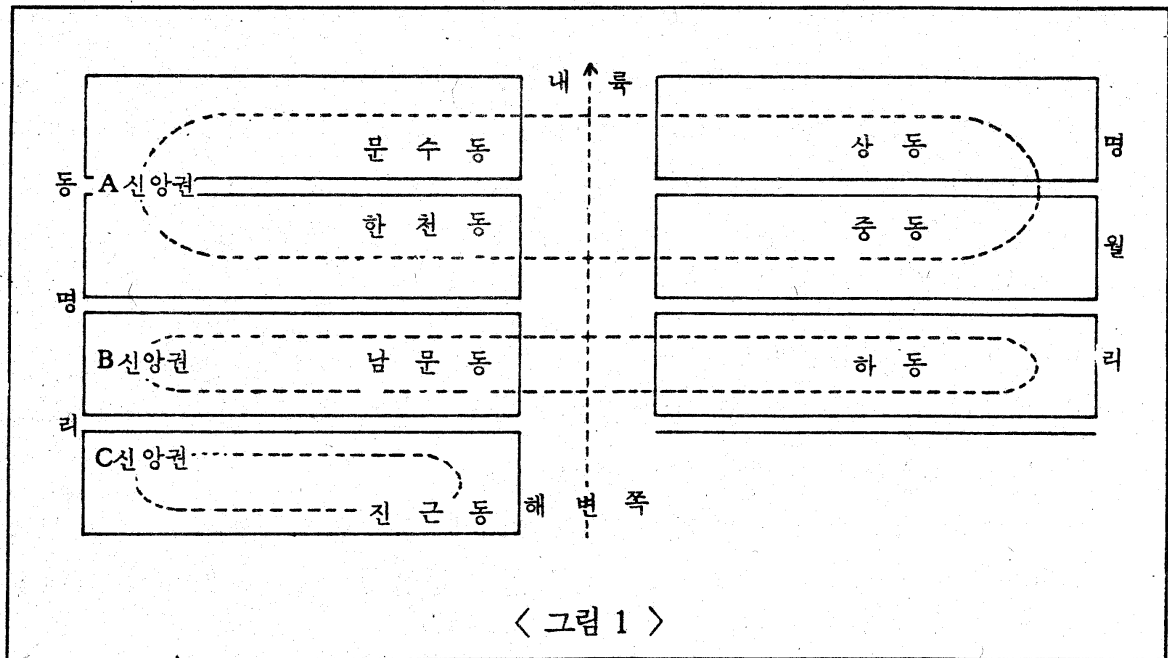
명월리 하동은 단지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행정구역상으로만 다를 뿐 동명리 남문동과 동일한 자연취락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 하나의 자연취락을 두고 속칭 ‘남동네’라고 하는데, 현재 설촌성씨인 진(晉)씨와 함께 梁씨가 주성을 이루고 있다. 이들 세 자연취락들이 입지조건상 다른 점이 있다면, 상동과 중동이 주로 봉천수에 의존하여 생활이 영위된 데 반하여 하동은 바로 성안에 城中有泉 如川湧出 大旱不竭(이원진 탐라지 성곽조)하는 용천수에 의존한 답농 위에 살아왔다는 점이다.

동명리는 내륙에서부터 해변쪽으로 차례로 문수동(문수물)－한천동(한샘이)－남문동(남동네)－진근동으로 불리는 자연취락들이 묶여 행정단위상 동명리를 이룬다.

문수동은 이 마을 안에 ‘문수물’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있는 자연취락이라는 데서 붙여진 동리명이며 단일 자연취락으로 50여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주성인 梁씨와 文씨, 그리고 나머지 잡성으로 이루어졌다. 한천동은 ‘한샘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있는 자연취락으로 50여호의 가호들 중 邊씨가 그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씨족부락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문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월리 하동과 동일 자연취락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약 70여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성은 梁씨와 文씨이다. 여기에는 생수가 있어 예로부터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1 >

신앙권

이 두 마을의 신앙권과 그 신앙형에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권이 행정단위의 마을 구별과는 엉뚱하게 다르다. 행정단위가 내륙 쪽에서부터 해변 쪽으로 이어지는 횡대로 나누어졌다면, 신앙권은 종대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동명리의 문수동과 한천동, 그리고 명월리의 상동과 중동, 이 네개의 자연취락이 합하여 동일한 본향신을 모시는 동일 신앙권(신앙권A)을, 그리고 동명리의 남문동과 명월리의 하동이 (남동네)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취락을 이루면서 동일한 본향신을 모시는 신앙권(신앙권B)을, 그리고 진근동이 또 다른 신앙권(신앙권C)을 이룬다.

그러나 '신앙권B'에 속한 신당의 사제자(메인 심방)인 김○언(남·60)씨의 본풀이 내용(1984. 8. 2 제보자의 집 한림읍 웅포리에서 채록)에 의하면 이 신앙권 내의 본향신들은 서로 친족관계로 이뤄졌다. 그 본풀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 나서 세 신앙권들의 신앙형태를 각기 알아 보기로 하자.

옛날 채진국에서 쫓겨난 사람(그 신명이 채진국에서 왔다고 하여 '채진국'이라 함)이 제주에 왔으나 먹고 살 것이 없어 여러 사냥도구를 마련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갔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신산고지까지 올라 갔는데, 며칠 동안 산길을 헤매고 다녀도 한마리도 잡히질 않았다. 바로 그 때였다. 어여쁜 처녀가 보였다. 그 처녀는 정좌수 따님인데, 부모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 한라산까지 올라와 나무 열매 등을 따 먹으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서로는 만나자마자 딱한 입장을 주고 받다 보니 쉬 친숙해졌다. 서로는 만났으나 전혀 사냥도 되지 않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다. 정좌수 따님 애기로는 채진국에서 사냥이 안 되는 것은 산신기도를 안 올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서로는 떡과 밥, 그리고 고기를 마련해서 산신기도를 올렸더니 과연 사냥이 잘 되었다. 둘은 그날밤을 같이 지새게 되었다. 채진국은 정좌수 따님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좌수 따님은 부모의 허락없이 몸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둘이는 다음날 아침에 부모의 허락을 받은 후 결혼하기로 하고 정좌수를 만나기 위하여 산 밑으로 내려갔다. 정좌수는 이미 내 집을 떠난 딸이니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둘은 집을 나와 다시 한라산으로 향했다. 한라산 중턱에 있는 '언약잇도'에 와서 서로는 백년해로할 것을 언약하고 '시름도'에 와서 시름하고 '전지산'에 와서 전지하고 '애기낳도'에 와서 아들을 낳고, 딸 다섯을 낳았다. 부부신은 거기에서 여러 자식들에게 각기 여러 마을로 내려고서 본향신이 되어 산 설립, 물 설립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큰아들은 고한이 (지금의 상대리의 고명)로, 둘째아들은 하원(지금 명월리 중동)으로, 작은 아들은 남동네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딸들은 조수리, 저지리, 상명리 등지로 각기 보내두고 나서 부부신은 금악리로 와서 상동에는 여신이, 하동에는 남신이 각기 좌정하였다.

1) A신앙권의 사정

A신앙권의 聖所인 당은 모두 세 군데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본향당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한천동에 있다고 하겠지만, 거리상으로는 오히려 중동 가까이에 위치한 편인데, 한 당 안에 모시고 있는 신은 둘이다. 그 하나는 바로 금악계 본풀이당의 셋째 아들로 이 신앙권 내의 본향신이 축일한집님(남신)이고 바로 그 옆에는 본향신의 부신격인 술일한집님(여신)이다.

이 당의 정기적 제일인 정월 첫 축일엔 특별히 부정한 일이 없는 한 이 신앙권 내에서도 명월리 상동만을 제외한 모든 신앙민들이 두 신 몫의 제물(메 2기)을 차리고 와서 소규모로 신과세를 올리는 정도가 고작이지만, 개별적으로 제를 올릴 때는 어느 때건 본향신을 위한 제의라면 축일날에, 그리고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인 술일한집을 위한 제의라면 술일날을 택해서 사제자인 심방을

대동하고 가서 간단히 비념형식으로 제를 올린다.

이 당의 내력담인 본풀이라고 해봐야 위에서 소개한 본풀이 이외에는 전하는 게 없어 구체적인 신앙형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두 신을 위한 제단 사이에는 5~6m 높이로 돌담을 쌓아서 좌측으로는 本郷神이, 우측으로는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인 술입한집님이 좌정해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제주 당신들의 동일 신앙권 내에서의 신들의 역할 분화와 그 신앙형태들에 대한 보편적 사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Ⅲ절에서 언급될 것이다.)

① 한천동의 신앙형태

다시 한천동으로 가서 보면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볼때 서쪽 동구밖에 '술일당' 이라고 불리는 당이 있다. 한 신앙민(변규홍, 남·72세)의 말에 따르면, 옛날 본향당의 부신인 술입한집님의 신체를 이곳으로 옮겨다가 모시고 있는 당이라고만 하는데, 한천동 주민들의 이 당에 대한 신앙형태를 알아 보면 가히 짐작된다.

한천동에 거주하는 신앙민들이 신앙하는 당을 두 군데로 나뉜다. 일부 신앙민들은 앞에서 서술한 본향당을 다니는가 하면 신앙민들은 이 동네에 좌정해 있는 술일당만을, 또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천동의 신앙민들은 특히 어린애들의 무사한 성장이나 또는 아팠을 때 술일당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이 동네에는 사제자인 심방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민들 스스로가 언제건 술일을 제일로 택하여 메 1그릇에 떡, 지전, 실 그리고 가능하면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당에 찾아가서 사제자 없이 비념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한천동의 술일당은 바로 A신앙권 내의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인 술입한집의 신체만을 이곳으로 옮겨다가 당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당을 '가지 가른 당 또는 '가지 잘라온 당'이라고 한다.

② 상동의 신앙형태

옛날 명월 중동에서부터 이곳으로 몇 세대가 이주해 와 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삶의 터전을 이뤘을 것이라고 하는 명월 상동은 중동과의 거리가 약 2.5km나 떨어져 있다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A신앙권 내의 본향신인 축입한집

님과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인 술일한집님의 신체를 모두 이 동네 북쪽에 위치한 ‘박니물’이라고 하는 냇가 주위로 옮겨다가 ‘가지 가른 당’을 설립했다. 제물은 물론 제일이 A신앙권 내의 본향당의 그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한 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몇해 전 하원당의 사제자인 문O인씨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사제자가 이곳의 당까지 와서 사제를 담당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삼승할망이 대신 사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앙민들 스스로가 직접 당에 찾아가서 행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옛날에 이 동네 사람들은 중동에 위치한 하원당엘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었다. 명월 중동의 한 양씨 할머니가 이 동네 고씨댁으로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하원당의 대제일날인 정월 첫 축일에는 어김없이 가곤했다. 그러던 어느날 바로 그 하원당의 대제일날이었다. 마침 그 날은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도 양씨 할머니는 발길을 재촉했다. ‘박니물’(전남천상류의 이름)에 이르러서 그만 냇물이 넘치는 바람에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양씨 할머니는 바로 그 냇가 정결터에다 제물을 차려 놓고 멀리서나마 당신에게 제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 바로 그 때 양씨 할머니가 제를 올렸던 그 자리가 이 동네 사람들의 제반사를 수호해 주는 당 신을 위해 행제하는 곳이 되었다. 이 양씨 할머니가 바로 나(제보자)의 6대조모이다. (1904. 8. 2. 명월리 상동 高時宗(남·79)씨의 담)

이상에서 볼 때 A신앙권 내에는 4개의 자연취락들이 이 명월 중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권을 오랫동안 형성해 왔다.

이 신앙권 내의 두 신은 서로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남신인 축일한집은 본향신의 역할을, 여신인 술일한집은 이 신앙권 내의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의 역할을 분할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4개의 자연취락들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다르지만, 신앙권상으로는 동일하므로 A신앙권 내의 한천동, 문수동, 그리고 명월 상동의 자연취락들은 그 신앙 중심지인 명월 중동에서 분파해 간 취락들임을 추론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거리상의 관계로 신앙권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2) B신앙권의 사정

A신앙권 내에서는 그 역할이 다른 두 신이 4개의 자연취락들 중 신앙중심지인 명월 중동 가까이에 있는 당(하원당)안에 돌담 하나를 경계로 하여 나란히 좌정해 있지만, B신앙권내에는 신들의 역할은 물론 상주처인 당이 각기 따로 있다. 역할이 다른 두 신이 서로 달리 좌정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상에 고정시켜 놓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본풀이는 앞에서 소개한 본풀이에 이어지는 것이다.)

남동네로 온 남신은 이 동네를 와 장가를 들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냥길에 나선 남신은 석달 열흘이 지나도 돌아올 줄을 몰랐다. 기다리고만 있던 여신은 남신을 찾아나서서 산길을 헤매어 다녀야 했다. 애쓰게 산길을 헤매다 보니 자연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산돼지 발자국으로 인해서 생긴 자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물이 조금은 더럽기도 해 보여 물 위에다 치마자락을 덮고 울퉁으로 새어 나온 물이 빨아 먹었다. 그런데 이상케도 산돼지의 털이 이빨 틈에 들어가 박히는 것이었다. 한번 틀어박힌 털은 빠지질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화심불로 그것을 그을려 녹여내릴려고 했었지만 부정한 냄새는 가시질 않았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그때서야 남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온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어데서 날뿔내가 난다며 성화를 부렸다. 여신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일러 바쳤다. 그러자 남신은 화를 발끈 내면서,

“지금 당장 땅 가르고 물 가르자, 어서 남풍(마복름) 부는 밑으로 내려서 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부부신을 살림을 갈랐는데, 남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좌정해 있으면서 이 마을의 본향신이 되었고, 여신은 남풍 밑으로 가서 좌정해 있으면서 이 마을 어린애들의 질병과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 (1984. 8. 2 한림읍 웅포리 김○인(남·68) 이야기식으로 채록된 본풀이에 의함)

본풀이상에 고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B신앙권 내의 본향신은 건남천 바로 서쪽에, 그리고 육아들의 질병 내지는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여신은 본향당에서부터 다시 서남쪽으로 약 300여미터쯤 떨어진 B위치에 좌정해 있다. 본향신은 당이 위치해 있는 곳의 지명이 ‘서문’이라서인지 ‘서문하르방’ 또는 제일을 따라 ‘축일한집’이라 하고, 육아들의 질병과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여신은 그 신을 위한 제일이 정월 8, 18, 28일이기 때문에 ‘으드렛당’ 또는 ‘으드레할망당’이라고 한다.

B신앙권의 본향신을 위한 제일은 두 차례에 걸쳐 당굿을 올리는데 그 하나는 정월 첫축일에 올리는 신과세굿이고 또 하나는 8월 첫 축일에 올리는 추수감사 제적 성격의 ‘추석제’이다. 이와 같은 당굿이 B신앙권 내의 모든 신앙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올리는 제의라면, 개별적으로는 신앙민들이 일정한 날을 택하여 사제자인 심방을 대동하고 당으로 가서 소규모로 앉아서 올리는 비념 형식의 제의도 있다.

여러 신앙민들이 본향당에 제의를 올리기 위하여 갈 때에는 메 두 그릇 이외에 여러가지 제물을 준비하고 간다. 한끼의 메는 본향신 몫이고 나머지 하나는 본향신 바로 옆에 좌정해 있는 농신인 ‘제석천황’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절대 금기시한다.

어린이들의 질병과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여신인 ‘으드레할망’은 대개 비념형식의 것으로만 행한다. 정기적 제일로는 정월 8, 18, 28일 그리고 8월 8, 18, 28일이다. 대개 신앙민들은 정월과 8월의 정기적 제일들 중 그 어느 하루를 택하여 메 1그릇과 기타의 여러 제물을 준비하고 당에 가서 제를 올리는데, 특이한 사실은 본풀이에서와 같이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다. 이는 이 마을의 본향신의 식성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면서 신들의 역할분화를 강조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B신앙권 내에는 본향신과 유아들의 질병을 관장하는 여신이 따로 좌정해 있는데 본향신을 모신 바로 옆에다 농신인 제석천황을 따로 모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육아들의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그 역할 이외에도 오곡의 병충해까지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B신앙권 내의 농업형태가 전작풍토인 이웃 신앙권들과는 달리 주답농의 농업풍토를 이루고 있어 전작의 농업풍토보다는 그 병충해로 인한 고통은 바로 마을 전체 공동의 문제거리로 대두되어 왔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굿이라고 하면 사제자인 심방이 소무들을 함께 대동하고 당으로 가서 무악을 울리며 하는 큰 제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당에서 하는 굿이라고 하여 흔히 당굿이라고 한다. 이 당의 사제자인 김○언(남·68)씨에 따른 당굿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삼석올림 : 당신에게 오늘 당굿을 올리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악기를 세번에 걸쳐 올린다.

② 켓문열점 : 당신에게 오늘 여러가지 제물을 올릴 것이니 신이 갖고 있는 켓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사설을 읊조린다.

③ 초감제 : 수심방은 장고를 받고 앉아서 신에게 제장의 위치, 제일, 제를 올리게 된 연유 등을 고해 올려두고 나서 계속하여 본향신의 내력담인 본풀이까지 창한다.

④ 예명(列名)올림 : 역시 장고를 치면서 신에게 신앙민들의 성과 연령을 고해 올려 축원하는 과정의 제차이다

⑤ 본향드리 : 수심방이 무악에 맞춰가며 일반굿에서의 '질치기'와 같이 본향신이 오는 길을 치워 닦은 후, 극렬한 동작과 요란스러운 무악에 맞춰 본향신을 청한다.

⑥ 삼헌관 절시킴 : 동네 유지인 삼헌관이 배례하고 소지를 사르고 축원하는 과정이다.

⑦ 마을도액막음 : 마을 내의 모든 액을 막아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보통 닭을 희생시킨다.

⑧ 도진 : 당굿의 마지막 제차로 신에게 굿이 끝났음을 알린다.

3) C신앙권의 사정

C신앙권 내에는 '일렛당' (七日堂)이라고 하는 당 안에 하나의 신만이 모셔지고 있다. 그 당의 명칭으로 미뤄 볼 때 여타 신앙권 내의 것도 같이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女神을 모신 당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은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당이면서도 본향당적 기능도 한다. 이 당의 신은 정월초 7일에 정기적으로 여타의 본향신들처럼 신과세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향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정월 7, 17, 27일 그리고 8월 7, 17, 27일의 정기적 제일 이외에도 신앙민들중 어린애가 아팠을 경우에 비 정기적으로도 찾아오고 있다는 점과 신의 식성이 여러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당신들처럼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미뤄 볼 때에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의 사제자인 메인심방(조○○여·74)는 원래 무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 당의 맏인 심방인 고○석씨가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신앙민들의 권유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당의 사제를 담당해 오고 있다 한다. 김○언씨의 말에 따르면 이 당의 남편되는 신은 상대리 신앙권 내의 본향신인 고한이한집이라고 한다. 상대리 신앙권 내에는 고한이한집이라고 칭하는 본향신 이외에는 당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향신이 본향신의 직능은 물론이려니와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러고 보면, C신앙권과 상대외 신앙권과는 동일 신앙권이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해 버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계기로 인해 그 신앙권이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해 버릴 수는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